

4 2025 VOL. 346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회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1991-2025

 PT. BOSUNG INONESIA

34년의 경험으로
고객의 미래를 포장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월간 한인뉴스 4 2025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김종현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김종현

편집인 양대화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송기섭, 노병진, 송호진, 고광희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0812-1960-308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 사진 : 작가 양진영

(Krakatau Posco)

가족과 함께한 발리 여행 중 들린 발리
우붓의 스타벅스는 조금 특별했다.
우붓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사라스와띠 사원
과 정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사원의 조각상과 연못에 핀 홍련의 자
태가 너무 예뻐 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피
곤이 풀렸다.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스리텍스의 눈물과 섬유·봉제 산업의 경고

8

106주년 삼일절 기념식

9

[숨씨에 반하다]

원형꽃바늘방석 〈이연화〉

10

[김재훈의 '세무 TALK']

KEP-67/PJ/2025

세금 납부 및 신고 기한 완화

11

재인니한인회, 각 기관별 상견례

지금 만나러 갑니다

12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인도네시아〉



contents

2025. 4. 통권 346호

18

[여기가 맛집!] Shin Sushi Bar
〈황지영〉

21

[디카시 풍경] 별이 빛나는 밤에
〈우주원〉

22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20]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26

[서상영의 한방칼럼 24]
생활 한의학 7
화병(심화편)

30

[자카르타의 아침]
나에게 맞는 드라이버 샤프트는?
〈손상현〉

34

재인니문예총, 제10대 회장단 출범

35

[행복에세이] 구룡포 사람들
〈김준규〉

36

[단편소설] 조용한 귀향
〈조연숙〉

42

Hyaang the Yoga 7
〈Michelle〉

48

[취미부자 열정교수]
“땀방울을 사랑할 거다”
〈이영미〉

50

글로벌 코리아, 우리가 주역
〈황다인〉

54

[반려동물, 랜선집사]
나 좀 그만 보고 네 일해!
〈김상희〉

56

독일 교육제도와 인니독일국제학교
DSJ 〈조은아〉

60

민주평통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자문위원 워크숍 및 정기회의

62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 바람을
자카르타에 전하다
〈고성화, 정성환〉

64

인도네시아 법 해설(344)
중재 (2)
〈이승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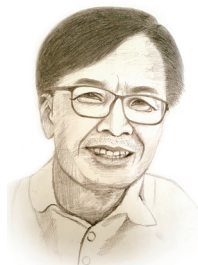
67

JKS 소식

68

생활정보

스리텍스의 눈물과 섬유·봉제 산업의 경고



논설위원 신성철

지난 3월 1일,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지역의 한 섬유·봉제 공장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공장을 나섰다. 누군가는 공장 정문 앞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평생을 함께한 동료와 뜨거운 포옹을 나눴다. “이곳에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을 키웠다”는 한 여성 노동자의 말은 한 기업의 몰락이 곧 수많은 삶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건은 전통적으로 기쁨과 나눔의 달로 여겨지는 라마단의 시작과 맞물려 더욱 뼈아프다.

이날 문을 닫은 기업은 인도네시아 최대 섬유·봉제 업체 가운데 하나였던 스리텍스(Sritex). 한때 북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군용 위장복을 수출하며 국제적 위상을 자랑하던 이 기업은 결국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법원의 파산 판결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구제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회생 방안은 끝내 마련되지 못했다. 58년 역사를 가진 기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섬유·봉제 산업은 고용과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섬유·봉제 산업은 전체 고용의 2.75%를 차지했다. 고용 외에도 이 산업은 제조업의 핵심 축으로, 2024년 4분기 제조업 총생산의 5.34%를 차지했다. 그러나 섬유 산업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충격, 그리고 규제 장벽 등 복합적인 문제에 시달려왔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보도했다.

섬유·봉제 산업의 경기순환적 특성도 명확히 드러난다. 수출 수요는 경제 변동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다.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의 섬유·봉제 수출은 세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큰 폭의 감소를 겪었다. 2015년에는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이 감소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무역과 공급망 붕괴가 산업에 타격을 입혔다. 최근 2023년에도 섬유·봉제 수출은 전년 대비 15.95% 감소했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과잉 재고 조정을 위해 미국 소매업체들이 수입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되풀이되는 사이클은 인도네시아 섬유·봉제 산업이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며, 향후 하락세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 정책 유연성, 국내 회복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섬유·봉제 산업의 침체는 해당 규제 시행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IFG 프로그레스(Indonesia Financial Group Progress)의 연구에 따르면, 섬유·봉제 산업생산과 설비가동률(Industrial Production and Capacity Utilization)은 2019년 84.93%의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4년 12월에는 67.12%까지 떨어졌다. 이 하락세는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공급망 붕괴와 수요 감소가 주요 요인이었다. 유엔 무역통계(UN Comtrade)에 따르면, 이 시기 인도네시아의 섬유 및 의류 수

출은 가치 기준으로 15.95% 감소해, 단기적 규제 외에도 산업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IFG 프로그램의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분석은 섬유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TFP는 주어진 투입 대비 생산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섬유 및 의류 산업의 TFP는 2013년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왔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노동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 등을 반영한 생산효율성 수치이다.

스리텍스의 파산은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인도네시아 섬유·봉제 산업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축소판이다. 이 산업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섬유·봉제 수출은 세계 경기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흔들렸고, 팬데믹 이후 미국의 수입 감소로 2023년에는 수출이 15.95%나 감소했다. 문제는 이런 외부 충격보다 내부에 있다. 생산설비의 80%가 노후화됐고, 마감공정 기계는 93%가 낙후됐다. 연구개발(R&D)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은 5%도 되지 않는다. 생산성은 해마다 떨어졌고, 경쟁국인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는 기술혁신과 저비용 구조로 무섭게 추격해왔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정책도 혼선을 빚었다. 2024년 무역부령 제8호는 수입 요건을 완화했지만, 국내 산업 보호 대책은 없었다. 값싼 수입산이 물밀듯이 들어오며, 스리텍스 같은 토종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기업들의 재무 구조도 한계에 이르렀다. 2015년 이후 섬유 기업 다수는 유동성 위기에 시달렸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를 반복했다. 알트만 Z 스코어(Altman Z-Score) 지표는 상당수 기업이 디폴트 위험에 가까워졌다고 경고한다. 스리텍스의 사례는 단순한 경기 불황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Z-Score가 1.8을 밑돌면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3점 이상인 기업은 파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뒤처지고 있다. 비교우위지수(RC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의 섬유·봉제 경쟁력을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이 섬유·봉제 수출에서 우위를 점하는 주요 요인은 낮은 생산 비용, 특히 노동과 기술 효율성이다. 특히 제조 원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료가 베트남에 비해 인도네시아에서 훨씬 비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인도네시아 섬유·봉제 산업의 문제는 단기적 경기순환을 넘어, 생산 방식의 낙후, 기술 채택의 지체,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 장기적인 비효율성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규제가 아니라 체질 개선이다.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R&D 투자 확대, 노동자 재교육 체계 마련, 수입 급증을 조절할 수 있는 무역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보호’와 ‘경쟁력 강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관된 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스리텍스의 몰락은 시작일 수 있다.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다면, 다음에 무너질 이름이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산업의 붕괴는 곧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지금이야말로, 겉으로 보이는 숫자 너머 산업의 뿌리를 다시 들여다볼 때다. [끝]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지난 3월 1일,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강당에서 삼일절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수덕 대사대리, 이장근 주아세안대표부대사와 김종현 한인회장, 이강현 코참회장, 이세호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회장 등 각계각층의 한인동포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독립유공자 최종순님의 후손인 최태립 한인회 부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기념식의 문을 열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한 박수덕 대사대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며 “정부는 서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간·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현 한인회장은 “오늘 우리는 인도네시아라는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기반에는 3.1 운동 정신이 녹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과 “올해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3.1 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초청된 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의 하 나된 청아한 노랫소리는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고국으로 가득 채웠다.





바늘방석이
꽃방석이 되고
가시밭길이
꽃길이 되길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구상 <꽃자리> 중



작가: 이연화

2017-2019 핸드메이드 소품 밴드운영 및 수업

2022 한국문화원 문화 강좌 규방공예

2023 한국문화원 문화 강좌 규방공예

2024 프리랜서 작품활동



KEP-67/PJ/2025 세금 납부 및 신고 기한 완화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국세청은 Coretax System 구현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납부 및 세무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하는 국세청장령 KEP-67/PJ/2025 호를 지난 2월 27일 공포하였다.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KEPUTUS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KEP-67/PJ/2025

TENTANG

KEPUTUSAN DIREKTUR JENDERAL PAJAK TENTANG KEBIJAKAN
PENGHAPUSAN SANKSI ADMINISTRATIF ATAS KETERLAMBATAN
PEMBAYARAN DAN/ATAU PENYETORAN PAJAK YANG TERUTANG DAN
PENYAMPAIAN SURAT PEMBERITAHUAN SEHUBUNGAN DENGAN
IMPLEMENTASI CORETAX DJP

DIREKTUR JENDERAL PAJAK,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금 납입 기한:

원천징수세 (PPh) 제4(2), 15, 21, 22, 23, 25,
26조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2월 28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
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부가가치세 (VAT) 및 사치세 (PPnBM)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3월 10일

수취인이 징수하는 인지세: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세금신고서 (SPT) 제출 기한:

원천징수세 신고서 (SPT Masa PPh 21/26 및 통
합 PPh 신고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신고: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사업소득에 대한 PPh 제4(2)조 및 PPh 제25조
신고: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부가가치세 (VAT) 신고서 (SPT Masa PPN) 제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3월 10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4월 10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5월 10일
인지세 신고서 (SPT Masa Bea Meterai) 제출: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기관별 상견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7대 한인회의 분과별 구성을 정비하고 각 기관장들을 초대하여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3월 4일, 자카르타 한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인사회와 인도네시아의 발전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2월 18일에 각 한인단체장을 만남에 이어 한인회 김종헌회장은 한인회가 펼칠 새로운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기관장들과의 만남 참석자]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김현주 팀장,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이장희 관장, 한국관광공사(KTO) 자카르타지사 김지선 지사장, 한-인니산업기술협력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니사무소) 정진용 소장,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KITA) 윤정열 지부장,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이승훈 지사장,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인도네시아 이지환 센터장, 인천광역시 해외



무역사무소 천상연 소장, 경기도 경제진흥원 자카르타사무소 신호진 소장, 경상북도 자카르타 해외사무소 문홍부 소장,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하원정 소장,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Center 박세훈 센터장,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AKSTCC) 이충현 센터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정종현 센터장, 한-인니해양플랜트 협력센터 조일형 센터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카르타 김유나 소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카르타지사 나원주 지사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인도네시아지사(KTC) 김운환 법인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영호 사무소장, 그린비즈니스 센터(GBC) 이종순 센터장, 한국전력공사 동남아지사 이제형 지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수 소장, 건설공제조합 김영주 지사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종헌 회장, 김종희 수석부회장, 김문수 부회장, 이승준 부회장, 이주한 부회장, 최태립 부회장, 임성필 사무총장, 이윤정 간사



2025 년 3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비즈니스>

“프라보워노믹스, 인니 경제의 도약인가 무모한 도전인가”

인도네시아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야심 찬 경제 정책, 이른바 ‘프라보워노믹스’ (Prabowonomics)를 통해 연간 8% 성장과 절대 빈곤율 0%라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했다. 그의 경제 정책은 과연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과도한 낙관이 초래할 위험한 실험일까? 아래는 현지 언론과 관련 세미나를 분석해 정리했다.

8% 경제 성장, 현실 가능한가?

프라보워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FDI) 확대, 수출 주도형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성장률 8%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니켈·구리 가공 산업, 전기차 배터리 생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8% 성장률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10년간 평균 성장률은 5% 내외에 머물렀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8%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 유입과 내수 시장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나친 외국인 투자 의존은 경제 주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니켈과 구리 산업, 기회의 창인가 환경 재앙인가 프라보워 정부의 산업 전략 중 핵심은 니켈과 구리 가공 산업 확대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으로, 이를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및

첨단 기술 산업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LG, BYD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광물 가공 산업은 막대한 환경 오염과 에너지 소비를 유발한다.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3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광물 가공이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료 급식’과 ‘사회 복지 확대’, 빈곤 해결책 될까?

프라보워노믹스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은 사회 복지 확대이다. 특히 무료 급식 및 우유 제공, 무료 건강검진, 공무원·군경 월급 인상,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빈곤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인프라 투자와 복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이 재정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프라보워노믹스, 성공하려면?

프라보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

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외국인 투자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외자 유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광물 가공과 전기차 산업 육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국가 재정을 신중하게 운용하지 않으면, 복지 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땅그랑 신발공장 대규모 정리해고로 생존 모색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신발을 공급하는 반뜰주 땅그랑의 주요 신발 공장 2개 회사가 주문 급감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가 지난 7일 밝혔다.

인력부 땅그랑군 지소의 산업분쟁해결 담당 책임자인 데시안띠에 따르면, 관내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신발을 생산하는 주요 신발 공장 2개 회사가 주문 급감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3,50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고 당국 관계자가 지난 7일 밝혔다.

인력부 땅그랑군 지소의 산업분쟁해결 담당 책임자인 데시안띠에 따르면, 관내 찌꾸바와 빠사르 ڠ미스 지역에 위치한 빅토리칭루(Victory Chingluh) 공장은 올해 1월 이후 2,000여명을 감원했다. 이 회사는 과도한 인력과 주문 감소를 정리해고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고 자카르타글로브는 보도했다.

한편 CNBC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빅토리칭루는 지역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땅그랑 공장을 서부자바주 찌레본으로 이전하면서 근무지를 이동하고 싶지 않은 직원 2,000여명에 대해 권고사직을 받았고, 가동 중인 땅그랑 지역 공장에 9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빅토리 칭루의 여러 사업장에는 총 15,8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빅토리 칭루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신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대만 칭루그룹(Ching Luh Group)의 해외사업부이다.

한편,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Adis Dimension Footwear)는 지난해 대대적인 비용 절감 전략의 일환으로 1,50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현재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 공장에는 10,10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데시안띠는 “지난해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급등한 운영 비용과 급격히 감소한 시장 수요 때문이다. 그러나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 측은 올해 추가 정리해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땅그랑 발라라자 지역 위치한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는 지난 30년 동안 나이키를 생산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자, 기업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20조 루피아(약 13억 달러) 규모의 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신용 프로그램은 섬유, 의류, 신발, 가구, 식음료, 완구 제조업과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최소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다시 고개드는 루피아 ‘리디노미네이션’... 지금이 적기?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넘게 논의되어온 루피아 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단위조정)이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루피아 리디노미네이션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경제적 안정, 낮은 인플레이션 및 충분한 외환 보유고 등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화폐 단위에서 세 개의 영(0)을 없애는 적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3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루피아화의 화폐 액면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잊을 만하면 다시 나오는 게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다. ‘화폐단위 조정’이라는 뜻의 리디노미네이션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실질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조치다. 예컨대 1천 루피아를 1루피아, 혹은 10루피아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면 현재 액면가에서 ‘0’ 3개를 떼어내는, 즉 1천 루피아를 1루피아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현재 50,000 루피아(약 3.05달러) 지폐가 50루피아 지폐로 바뀌더라도 실제 구매력은 유지된다. 즉, 상품 가격도 1,000단위로 나누어 조정되는 방식이다.

이미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세 자리 0을 생략한 가격 개념에 익숙하다. 가게나 음식점에서는 가격 표시에 ‘000’을 생략하고 ‘k’ (천 단위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부 자카르타에서 노점상과 세탁 보조 일을 하는 시티 하사나(56)씨는 가격을 부를 때 앞의 두 자리 숫자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예를 들어 10,000루피아를 “10” (sepuluh)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마지막 세 자리가 0이 아닐 때만 “천”이라는 단어를 붙여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루피아화 환율이 1달러당 16,000루피아를 넘는 등 액면가가 너무 커서 상거래와 회계 처리 등 경제활동에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반

복해서 제기됐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규모에 있어서 세계 16위의 국가임에 불구하고 루피아 환율은 달러대 16,000루피아 수준이다. 루피아가 저평가된 상태라며,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 지불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루피아 가치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리디노미네이션과 평가절하(Devaluation)는 다르다”

빠르마파은행의 조슈아 파르테데 수석연구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화폐 평가절하(Devaluation)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만일 화폐 단위 변경인 리디노미네이션을 화폐 가치 감소 또는 평가절하로 인식하면, 시행 전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리적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화폐 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1950년 재무장관이었던 샤프루딘 프라우라네가라의 이름을 따서 ‘샤프루딘 컷(Sjafruddin Cut)’이라고 불린 개혁이 있었으며, 네덜란드령 화폐를 물리적으로 반으로 잘라 사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1965년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루피아에서 세 개의 ‘0’을 제거하는 화폐 단위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정책의 홍보가 부족했고,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루피아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리디노미네이션 정책을 입안하고 2014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재무부는 2020-2024년 중 화폐 단위 변경을 검토하고 2024년까지 초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번 자카르타포스트 기사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화폐 단위 변경의 조건과 성공 사례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는

2023년 6월, 중앙은행이 이미 “리디노미네이션의 설계, 단계 및 절차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밝혔으나, 적절한 시행 시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페리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거시경제 및 통화 안정성 ▲금융 시스템의 안정 ▲사회 및 정치적 안정성을 제시했다. 조슈아 파르데테는 리디노미네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시기’와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며, 2005년 튀르키예와 1995년 폴란드의 사례를 성공적인 화폐 단위 변경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낮고 통제된 상태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반올림되는 경향 때문에 경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렴한 제품은 정확한 환산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 2023년 5월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1월에는 전년 대비 0.76%로 하락해 수십 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슈아는 “튀르키예와 폴란드와 같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들을 보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정책 투명성, 강한 경제 안

정성이 있다면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사회·정치적 안정성을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선거도 평화롭게 치러졌고, 정부 교체도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2025년 1월 기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1,56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디노미네이션, 지금이 적기인가?

BCA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수무알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가 화폐 단위 변경을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평가하며,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루피아에는 너무 많은 ‘0’이 붙어 있어, 화폐 단위 변경이 시장과 투자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의 두 경제학자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결제 시스템, 은행 시스템, 회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숫자를 줄이면 거래가 단순화되고 회계 및 결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사회〉

프라보워 측근,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사임설 일축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의 사임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측근이 재무장관의 사임 가능성을 둘러싼 소문을 일축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 측근인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 하원(DPR) 부의장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스리 물야니 장관의 사임설을 부인하면서, 지난 12일 라마단 만찬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과 스리 물야니 장관이 만나 국가 경제

관련 안건을 놓고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그린드라당의 고위 당직자인 다스코 부의장은 “정부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내각 개편 계획은 없다”며 “스리 물야니 장관의 사임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12일 저녁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과 만난 후 귀가할 때, 기자들이 스리 물야니 장관에게 사임설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나,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을 위해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각종 정부 사업에 차질이 빚고 있는 과정에서 사임설이 불거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약 9천만 명의 아동과 영유아, 임산부에게 하루 한 끼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는 연 280억 달러(약 40조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했고, 재무부는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는 대신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7천억 루피아(약 27조5천억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해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각종 정부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인디카토르 폴리틱 인도네시아(Indikator Politik Indonesi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리 몰야니 장관은 프라보워 내각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리 몰야니는 세 명의 대통령의 내각에서 재무장관직을 맡아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스리 몰야니는 2005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시절 처음으로 재무장관직을 맡아, 인도네시아의 재정 관리와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0년 사임 후 세계은행(WB)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 개발 정책에 기여했다. 이후 2016년 7월, 스리 몰야니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영입으로 다시 재무장관으로 복귀했으며, 조코위 정부 1기와 2기 내내 경제 수장을 맡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재정 부양책을 시행하며 인도네시아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 개혁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잘 알려진 스리 몰야니 장관은 정부 지출의 투명성 강화, 세제 개혁, 신중한 재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사임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적 리더십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금융·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 2029년 차기 대선 출마 수락

석유왕 표적 수사인가, 부패 척결인가 정치적 수사인가?

인도네시아 대검찰청은 석유 재벌 리자 찰리드가 연료 수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조사 중이며, 이 사건으로 국가 손실이 약 193.7조 루피아(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원유 및 연료 수입·유통 비리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이번 사건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에너지 부문 부패 척결 의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불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고위층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지난 3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검찰은 현재 9명의 용의자를 조사 중이며, 2월 24일에는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 자회사 임원 4명, 민간 석유업체 관계자 2명, 그리고 ‘석유왕’ 리자 찰리드의 아들이자 민간 석유업체의 실소유주인 케리 안드리안토 리자 등 7명을 체포했다. 이어 2월 26일에는 페르타미나 자회사 임원 2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검찰 조사 내용과 비리 수법

검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국내산 원유가

정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목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하고, 국내 정유소에서 사용할 외국산 원유를 현물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송 수수료를 13~15% 부풀려 추가적인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더 많은 정제유(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페르타미나 정유소의 처리 용량을 의도적으로 줄였으며, 옥탄가 RON-90인 저등급 연료를 수입해 RON-92로 속여 비싼 가격에 페르타미나에 납품했다. 이후 페르타미나 자회사인 Patra Niaga는 RON-90과 RON-92를 혼합해 RON-92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원유 순수출국이었으나, 원유 생산량 감소로 2004년부터 원유 순수입국이 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60만 배럴 미만이지만, 국내 수요는 하루 130만 배럴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석유왕’ 리자 찰리드와 석유 마피아의 영향력 리자 찰리드는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석유 수입을 지배하며 ‘석유왕’으로 불려왔다. 그는 페르타미나 자회사인 페트랄(Petral, Pertamina Energy Trading Ltd.)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첫째, 35년 넘게 인도네시아의 신규 정유소 건설을 방해하며 석유 수입 의존도를 높여온 부패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반석유 및 가스 마피아 테스트포스’를 구성했다. 테스트포스 조사 결과, 페트랄이 2012~2014년 원유 및 석유 조달을 조작해 국가에 약 250조 루피아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페트랄 사장이었던 밤방 이리안또만 기소되었을 뿐, 주요 인사들은 처벌을 피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초반에도 석유 마피아의 존재를 인정하며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무역적자 악화를 우려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리자는 수하르토 정부 시절부터 석유 거래를 해 온 인물로, 인도네시아 석유 마피아의 핵심 인물로 여겨져 왔다. 그는 2008년 자타피 원유 수입 사건과 2015년 ‘파파 민따 사함(아빠가 주식을 원해)’ 스캔들에 연루되었으나, 법적 처벌을 피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는 그의 아들 케리 안드리 안토가 체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리자의 사무실과 거주지까지 급습하며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리자가 2014년 대선 당시 프라보워를 공개 지지했던 점을 상기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인가, 실질적 개혁인가?

페르타미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수사 방향에 대해 일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실질적인 비리 척결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소식통은 “리자의 아들 체포는 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라며, 리자의 시대가 끝나고 석유 수입 시장의 권력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단순한 개인 처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석유 수입 비즈니스의 권력 재편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프라보워 정부가 실제로 석유 마피아를 근절할지,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끝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Shin Sushi Bar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월의 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특정한 시간대를 가리키면서 언저리에 챙겨 먹는 식사 뜻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점심은 점 점(點) 마음 심(心). 마음에 점 하나를 찍듯, 가벼운 식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엔 중국 송나라에서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모든 게 피폐해지고 사람도 지쳐가던 때, 장군의 아내가 직접 빻은 만두를 나눠주며 “나라를 위해 싸우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 대접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점 찍는다 생각하고 받아주면 좋겠다고... 격려 덕분인지 마음의 허기를 채운 군인들은 수세가 물리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점심처럼 마음에 찍은 가벼운 점 하나가 의외의 따뜻함과 든든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식사도 따뜻함과 든든함으로 다가오길 바라며 따뜻하고 든든한 맛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곳은 Shin Sushi Bar입니다. Kelapa Gading 쪽에 새로 생긴 Gafoy Mall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요즘 자카르타에서는 Pik 쪽도 그렇고 요즘 새롭게 생기는 쇼핑몰의 트렌드가 한국의 아울렛들처럼 개방형인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Gafoy Mall 또한 새로 생긴 개방형 mall인데요. 식사하시고서 거닐며 산책 겸 둘러보기도 좋으니 시간이 넉넉하실 때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깔끔한 블랙톤에 나무로 된 미닫이문, 테이블 등으로 꾸며져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 정갈한 일본식 느낌입니다. 셰프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카르타에서의 구할 수 있는 재료의 한에 전통 일본식으로 요리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는 개인 방도 있고, 테이블 그리고 셰프가 직접 회 뜨시는 오픈형 주방 앞에 Bar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는 오마카세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셰프 앞 Bar처럼 늘어져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요리로 New Style Salmon Sashimi (150,000 루피아++)입니다. 이 집 사시미 메뉴는 일반적인 Authentic Sashimi와 New Style Sashimi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Authentic은 3피스씩 나오는 일반적 사시미이고 New style은 각종 소스가 곁들여져 예쁘게 플레이팅도 되어 나오는 퓨전의 느낌이랄까...? New style은 5피스 연어사시미가 나왔는데요. 위에 토핑으로 얇게 채 썬 파, 소량의 트러플, 땅콩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그 조화가 생각보다 괜찮았는데요. 연어도 아주 신선하고 비리지 않아서 상태가 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시미 본연의 맛을 그냥 간장소스와 함께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면에서는 Authentic Salmon Sashimi (50,000 루피아 ++)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가격에 Authentic은 9피스를 먹을 수 있겠네요! 외에도 Otoro (참치), Hamachi (방어), Scallop (조개 판자살), Grouper (다금바리) 등 여러 종류의 사시미가 있으니 좋아하시는 생선으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Foie Gras Duck Soba with Duck breast (195,000 루피아 ++)입니다. 소바는 일본어로 메밀을 뜻하며, 메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넓게 펴서 말아 접은 후 가늘고 길게 썰어 낸 면인데요. 메밀의 원산지는 중국 티벳으로 추정되며, 흉년이 들었을 때 서민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먹던 구황작물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가마쿠라 중기 시대에 중국의 신불교를 배우러 유학을 떠난 일본의 승려들, 중국 송나라 무역상인들, 중국 승려들에 의해 메밀 곡식의 가루를 이용해 면을 만드는 요리법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푸아그라와 소바? 은근히 이상한 조합 같은 퓨전인가 싶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종종 라멘이나 소바에 쓰는 재료인 것 같습니다. 도쿄 여행 중 한번 발견한 적 있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모르는 음식에 도전해 보지 않은 성격에 그냥 지나쳤지만 음식에 도전성이 강한 저로서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조합이기에 시켜보았습니다. 소바면이 따로 나왔고 간장베이스의 소바소스와 그 위에 고명으로 푸아그라 한 조각, 오리 가슴살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정도 양의 푸아그라가 나올 것은 상상했지만 양에 조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맛은 생각보다 꽤 고소하고 풍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리로 Salmon Yakionigiri Chazuke (65,000 루피아 ++) 입니다. ‘Chazuke’란 밥을 차에 말아먹는 일본 요리인데요. 요리 이름이 아닌 차를 밥에 부어 먹는 식사법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오차즈케’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밥에 차나 물을 말아먹는 수반을 널리 먹게 된 계기는 환경적 요인도 있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지은 밥을 나무 밥통에 옮겨 담아 먹는 것이 보통이었고, 오늘날처럼 밥을 보온하는 기술은 전무하였으며 갓 지은 밥도 일부러 뒤셔 식혀 먹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찬밥으로 두면 녹말이 건조해져 갓 지은 식감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밥을 좀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밥을



데우거나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 이 수반을 즐겨 먹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Onigiri’란 삼각형으로 뭉친 일본식 주먹밥입니다. ‘Yaki’란 구운 뜻인데, 즉, 구운 주먹밥.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구운 주먹밥의 훈연 향과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구운 연어 한 조각을 촉촉한 차에 말아 드셔 보세요. 차는 녹차 맛이 약간은 낫지만, 약간의 간을 세게 하지 않은 다시 국물의 맛도 납니다. 가볍지만 든든한 한 끼로도 제격일 것 같습니다. 밥 안 먹는 아이들도 얼른 한 끼 똑딱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품들 외에도 일본 셰프가 있는 만큼 오마카세 코스요리도 준비돼 있었는데요. 9가지 코스의 오마카세 (1.3jt 루피아 ++), 7가지 코스의 오마카세 (1.1jt 루피아 ++) 두 지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드시는 양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식의 꽃은 디저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편의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빨간색 포장지의 한국으로 따지면 찰떡 아이스 같은 아이스크림을 아시나요? 너무 부드럽고 입안에 들어가면 사르르 없어져 일본에 갈 마다 몇 개씩 먹어 치우는데요. 그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Yukimi Daifuku Mochi (50,000 루피아 ++)입니다. 이 아이스크림 꼭 먹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일본식 커스터드 푸딩인 Purin (50,000 루피아 ++)도 있었고 마차, 호지 차 젤라또도 있었습니다. 입맛에 맞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햇살에 꽃망울 터지는 4월입니다. 한국은 벌써 봄이겠네요. 가벼워진 공기, 옷차림만큼이나 마음도 편안히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오늘에도 산뜻한 봄날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5월에 더 맛있는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당 정보 : Shin Sushi Bar

음식 종류 : 일식

가격대 : Rp 300,000-500,000 /2인 기준

영업 시간 : 월~일 오전 11:00- 오후 10:00

주 소 : Mall Kelapa Gading, Gafoy
Jl. Boulevard Raya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 Google 참고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돌고
달이 돌고
구름이 돈다
가만히 있으니
내 마음이 도는 거였다

글 : 우주원(ACS JAKARTA 4학년)

그림 : 빈센트 반 고흐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지난 호에 이어

“에루쑈쑈로에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왕, 이슬람의 포교자, 공의의 설파자, 그리고 가득찬 신뢰입니다. 술탄께서는 이중 하나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난 제왕의 권위를 선택하겠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포교자의 권위는 제가 감당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건 곤란한 일일세.”

별 것 아닐 수 있었던 이 대화는 결과적으로 라투아달의 권위를 끼아이 모조가 디포네고로 왕자와 나누어 공유하자는 것이었으므로 권력을 나누자는 말과 다름 아니었습니다.

“난 자바땅의 칼리파라네. 필요하다면 그 네 가지 권위를 모두 갖고 싶지만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 해서 누군가와 그 나머지 권위를 나눌 생각은 없네.”

“하지만 그건 한 사람이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무슬림, 이건 매우 정치적인 부분이야. 알라의 뜻에 따라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 조직엔 망꾸부미 왕자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수두룩한 상황이

지. 내가 자바땅의 술탄이 된 것은 그분들이 나보다 못해서가 아닌데 에루쑈쑈로의 권위를 그분들도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누는 모습은 우리들 사이에 분란을 가져올 걸세.”

“저는 종교적 부분을 감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기도 하고요!”

이 논쟁은 필요 이상으로 격해졌고 디포네고로는 끼아이 모조의 정치적 고집이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결국 의견충돌이 심해지자 자존심이 상한 끼아이 모조는 빠장(Pajang)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고 디포네고로 왕자는 이를 승락합니다. 그렇게 서로 떨어져 머리를 식히고 나면 언젠가 초심으로 돌아가 함께 일할 시간이 다시 올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물론 끼아이 모조가 디포네고로 왕자에게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이 전쟁을 이기고 싶었어요. 단지 디포네고로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스스로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디포네고로에게 사전 연락도, 사전 허가도 없이 네덜란드군의 위로네고로 중령과 비밀리에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위로네고로 왕자는 디포네고로군의 족자 끄라톤 공

격을 막아냈던 네덜란드군 측 지휘관으로 당시의 공을 인정받아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끼아이 모조는 이미 디포네고로군의 영적지도자였으므로 제자들은 그를 이슬람 큰선생으로 떠받들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든 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지만 끼아이 모조는 이때 자신만이 옳다는 종교적 자만심에 가득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이 빠장에 오갈 수 있는 특권과 끄라톤 최고의 종교지도자 지위, 그리고 자신이 오갈 때 네덜란드군 기병대의 호위까지 자연스럽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로네고로는 끼아이 모조가 정말 전쟁을 종식시킬 의지가 있다면 그 모든 요구들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로서는 디포네고로군의 신비주의적 이슬람 열정의 핵을 이루어온 끼아이 모조 같은 이를 전향시키기 위해 아낌없이 예외를 만들어 줄 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디포네고로 왕자는 당연히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슬림! 이게 도대체 무슨 것인가? 이슬람 지도자가 죽음이 두려워 네덜란드와 거래를 하려 한 건가? 우리들의 신념을 믿고 명령에 따라 전장에서 목숨을 바친 우리 병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소? 난 당신에게 그런 협상을 하라고 지시한 기억이 없소!”

그러나 끼아이 모조는 전쟁을 끝내려는 것이었지 디포네고로를 배신해 네덜란드측에 전향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디포네고로의 서한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란 말이오!”

끼아이 모조는 디포네고로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을 만나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으나 끝내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도처에서 벌어지던 전투 중 수하들과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와중에 몰래 종전협정을 진행한 끼아이 모조를 디포네고로 왕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만 건가?’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반역으로 비칠 수도 있었음을 마침내 깨닫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은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곧바로 네덜란드에 투항할 것이란 디포네고로군 대다수의 예상과 달리 끼아이 모조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정말 빠장의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문제는 그를 네덜란드군이 가만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르 바론 드 벡셀라(Letnan Kolonel Le Baron de Vexela) 중령이 이끄는 네덜란드군이 베독 강(Sungai Bedog) 서안에서 그 뒤를 따라잡았습니다.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으나 이미 사기가 바닥



북부 술라웨시 마나도 지역(중앙 호수가 톤다노 호수)

에 떨어진 그의 부대는 평소의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끼아이 모조와 살아남은 부대원들은 네덜란드군의 포로가 되어 살라띠가(Salatiga)의 네덜란드군 진영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끼아이 모조는 이후 스마랑과 바타비아의 지하감옥을 전전하다가 결국 동인도 북단인 북부 술라웨시 마나도의 툰다노(Tondano)라는 곳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끼아이 모조가 사로잡힌 지 얼마되지 않아 디포네고로군의 총사령관 센뜻 알리바샤(Sentot Alibasya)도 1829년 10월 17일 네덜란드에게 항복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막 스물 두살의 아직 어린 나이였던 센뜻은 전장에서 사자와 같이 용맹을 떨쳤지만 군대를 유지할 비용에 쪼들리자 네덜란드의 회유에 쉽게 넘어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센뜻을 회유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센뜻의 형인 마디운 군수 빠라위로디닝랏(Prawirodiningrat)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항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10,000굴덴이란 거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 초창기부터 거느렸던 빠닐리(Pinilih) 부족으로 이루어진 1,000명 규모의 직속부대를 계속 지휘하고 소총 500정을 추가해 그들의 무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죠. 빠닐리 부족은 북부 술라웨시 미나하사(Minahasa)의 부족으로 1826년 슬라롱을 네덜란드와 뺏고 뺏길 당시 탈환전 선봉에서 용맹을 과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용맹은 더 이상 디포네고로의 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항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람을 배교한다는 것은 아니요. 우린 더욱 철저히 알라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요.”

센뜻은 이렇게 말하며 소르반(Sorban)이라 불리는 아랍식 두건용 천을 계속 사용하고 네덜란드 군과의 회식 때 위스키를 마시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건 투항하는 마당에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모양새였지만 그런 모습에 어떤 이들은 안쓰러움을, 어떤 이들을 가소롭다는 표정을 애써 감춰야 했습니다.

센뜻은 항복한지 일주일 후인 10월 24일 마치 개선 장군처럼 족자에 들어서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월 100굴덴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네덜란드 기병대 소령의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센뜻의 항복은 디포네고로군의 사기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디포네고로 왕자를 따르는 많은 귀족들 역시 남기고 온 가족들이 네덜란드로부터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고민하던 터였습니다. 센뜻의 투항 이후 그들 역시 앞다투어 속속 네덜란드에 투항하고 말았으므로 디포네고로 왕자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더 이상 길어진다면 디포네고로에게 절대 유리하지만은 않을 터였습니다.

그 바로 직전인 1829년 10월 14일 디포네고로 왕자의 아내 라텐 아유 랫나닝시와 자녀들이 네덜란드군에게 사로잡히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디포네고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네덜란드군과의 협상은 거의 불가피한 듯 보였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전쟁을 빨리 끝내야만 할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전쟁비용을 치르느라 식민지 운영이 파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군은 디포네고로를 사로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



알리바사(총사령관) 센뜻 뿌라위라디르쵸

고 중상모략과 감언이설도 사용했는데 디포네고로의 목엔 5만 굴텐의 현상금도 나붙었습니다. 하지만 자바 민중들은 누구도 디포네고로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군은 그 위세가 크게 축소된 디포네고로군의 동선을 대체로 파악되고 있었지만 이제 드콕 장군은 디포네고로 왕자를 함부로 죽여 순교자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가 죽는다면 자바 민중들은 더욱 더 적개심을 불태우며 네덜란드에게 악에 받쳐 달려들 터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자바전쟁 초기인 1825-1827년 기간에 네덜란드 측이 겪어야 했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병력부족의 문제였고 더욱 심각한 것은 비용문제였

습니다. 나중의 일이지만 디포네고로 전쟁을 통틀어 네덜란드령 동인도 식민정부가 지출해야 했던 전쟁비용은 모두 2,500만 굴텐(약 1,270억 루피아)으로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더욱이 나중에 스텔셀 요새 작전을 수행하면서 더욱 촘촘한 요새건설과 부대의 기민한 기동력을 담보하는 데에도 과중한 비용이 소모되었으므로 네덜란드 본국에서는 디포네고로 전쟁을 식민정부의 그루트 온헤일렌(groote onheilen - 대재앙)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재정적자는 1,800만 굴텐(약 920억 루피아)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27년 한 해 동안 유럽인 병사 3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디포네고로군의 사상자 수에 못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1828년 초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총독과 군사령관이 모두 교체된 것은 이 대재앙에 대한 문책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인도군 총사령관에 복귀한 드콕 장군은 1828년부터 1829년 두 해 동안 이 대재앙을 하루 속히 끝내라는 본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드콕 장군은 급기야 회합을 미끼로 디포네고로 왕자를 방어선 밖으로 끌어내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를 잡으면 전쟁은 자동적으로 끝날 터였습니다. 자바의 귀족들이 일단 뺏은 말을 지키지 못하면 큰 수치로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드콕 장군은 클레이런스 대령(Kolonel Cleerens)를 독려해 디포네고로 왕자가 스스로 협상을 약속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네덜란드 측 꼼수의 일환으로 이미 투항한 센뜻 알리바사 같은 이들이 디포네고로 왕자를 회유하기 위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830년 디포네고로 왕자는 그와 자신의 군대가 입은 심각한 내상을 숨긴 채 네덜란드의 협상에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6장 끝)

한방

지난 호에 이어

생활한의학 7

화병(심화편)

고영광 (여 47세)

자녀와의 마찰 그리고 남편과의 불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다.

불화를 일으키기 싫어 넘어가는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예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이 속상하고 화가 나면서 감정조절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자식들은 크면서 나와 멀어져 가는 것만 같고, 남편은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영광님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표출하지 못함으로써 긴 시간동안 가슴에 쌓여온 것이 문제입니다. 그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분출하듯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광님을 힘들게 하는 대상인 자식들과 남편의 태도나 생각은 예전부터 그래왔을 것입니다. 순간 바뀌었거나 단 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했던 내면의 감정들이 쌓여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대개 갱년기 전후로 심해짐) 그래서 이런 감정을 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오히려 변화된 영광님의 말과 행동에 의아해 하거나 낮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영광님에게는 적반하장 식으로 느껴지므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감정을 자극하게 되어, 2차적 감정폭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광님이 이성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주변인의 시선에서는 자기들은 변한 것이 없는데, 영광님이 변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인들은 요즘 저 친구 이상해. 우리 엄마가 변했어... 같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당사자와 그 응어리의 원인인 대상자의 생각과 감정이 반대되는 경향이 있어, 당사자들끼리 풀어 나가기가 까다로운 문제이지만, 서로가 상대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대화)을 통해 한걸음씩 개선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이만큼의 스트레스였구나” 환자분은 “아~ 내가 적절한 감정이나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참고만 지낸 세월이 주변인들에게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었고, 일상이 되어 버렸구나. 소통을 제대로 못한 나의 책임도 있구나... 상호간의 이러한 인지가 치료의 첫 걸음입니다.

--- 화병은 혼자서만 극복하는 병이 아니라 주변인들이 함께 도와주고 살펴줘야 하는 병입니다 ---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장승기 (남 32세)

회사에서 가장 많은 잔업을 처리하고 있다.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이며, 내 주장을 잘 펼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 인정해 주길 바랐는데 희생하는 것에 비해 알아주는 사람은 적다.(저는 이것을 착한사람 증후군이라 명명합니다)

사회생활을 눈앞에 두었거나 사회생활 초년생인 분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마라톤처럼 꾸준히 해 나가라는 것과 주위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1~2년도 되지 않아 “번아웃 증후군” 이 되기 쉽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과를 내고 자신의 일에 만족감을 얻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야 한다는 법칙 같은 건 없습니다. 1년 지나서 돌아보면 초반에 열심히 뛰었던 친구들은 갈수록 지치는 모습을 보이고, 꾸준히 해나간 친구들은 처음에는 눈에 안 띄지만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전자는 급상승하다 중간쯤 가면 급하강 하고, 후자는 상승폭이 완만하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결과 또한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 도착점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성급해서 정신과 육체를 혹사 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뒤쳐져도 괜찮고 조금 평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해나가면 언젠가는 주변인들도 알아주고 성과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인의 요청이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시나요?

마지못해 승낙해서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고마움을 표시하고 관계가 돈독해 지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잘 지내십시오. 그렇지만 고마움도 모르고 당연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부탁만을 해온다면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그 사람은 저를 “호랑이 입” 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호랑이=범(호) 입= 입(구)

최남희 (여 40세)

열심히 일해서 절약해 가며 목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사기당함.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을 이룰 수 없음.

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속인 것은 속인 사람이 나쁘다. 하지만 두 번 속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빙빙 돌아서도 내게로 오고,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곁에 있다가도 결국 떠난다.”

사기나 배신을 당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고프고, 잠을 안자도 졸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얼마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신체나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약이나 병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기 배신을 당하여 돈과 사람을 잃었지만, 그로 인해 건강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반드시 잃고 나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배신하는 사람은 분명 나쁜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좁아진 사고를 넓혀서 생각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강은 악화가 되는데 식사도 제대로 안하고 밤잠을 계속 설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면 60대 이하 분들은 인생의 나락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꼴이고, 60대 이상인 분들은 저승길 예약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이미 일어난 골치 아픈 일들은 일단 미뤄두고, 건강 지키는 선택을 최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강순자 (여 62세)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드는 것도 별로 없다. 며느리는 속 썩이고, 아들과 남편은 내편 안 들어 준다. 이럴려고 지금껏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웠는지 서운함, 억울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만약 세상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 살맛 날 겁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세상만사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말들입니다. 만약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신 분이 계시다면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이기적이며 욕심으로 가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주변인들에게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화병 얘기하다가 사람 생각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의 잘못된 생각이 다른 상대와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스스로 불만족스럽고 불편해서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 무덤판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육체는 연결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고 불편한 정신속에서 어떻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 소화가 잘 되며, 기운이 나겠습니까.

살다보면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욕심이나 집착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다 내 탓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탓으로 우선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들의 해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통해야 기혈이 통하고 기혈이 통해야 건강하고 병이 회복됩니다.”

*화병의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

육체적-불면증, 체력저하, 목 어깨 결림, 두통, 소화불량, 면역력저하, 무기력, 변비설사, 붓기
정신적-걱정과 불안, 감정기복, 삶의 만족도 저하, 낮은 자존감. 잡생각 많아짐. 조급증

화병은 심장과 간에서 화기가 넘치고 폐와 신장으로 전이되어 정신을 평온치 못하게 함과 동시에 진액을 손상시켜, 관절, 근육, 피부, 혈관 등에 염증이나 트러블을 유발시킴으로써 인체를 손상시킵니다. 기가 허약해져서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면 만성 소화불량, 체기, 두통, 어지러움, 결림 증상, 집중력 저하, 쉽게 피곤, 저림 증상,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연관질환 : 갑상선질환, 담낭염, 담결석, 공황장애, 부정맥

화병은 일종의 정신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답답함, 분노, 불안 등의 감정으로 인해 혈액순환 장애, 호르몬 분비 이상, 혈액과 진액의 소진, 그리고 기는 약해지고, 몸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각 개인별로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릅니다. (1.금전문제 2.인간관계 3.사건, 사고, 사기문제 4.자식문제 5.배우자나 부모님, 형제문제 6.질병문제)

*치료

환자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

반드시 착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손한 거절, 멘탈 관리,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 자신의 감정표현, 5대5 요법 (10가지 일 중에 너댓가지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표현하는 것)

*의원에서 해결 해줄 수 있는 부분:

수면부족, 기력 보충, 변비나 설사, 소화기 문제, 통증 등 불편한 육체적 증상 개선

*해결과 극복방법 팁

1.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 그래야 건강을 돌볼테니까요

2.낮에는 일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됩니다. 다만 저녁에는 쉬세요 (여가활동, 인간관계, 취미, 휴식, 가족과의 시간, 개인시간 등): 그 이유는 저녁에도 뇌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을 한다 = “뇌에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정신적 피로의 누적은 결국 병세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3.병고가 닦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성장의 발판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놓여있고,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기 보다는 부딪쳐서 해결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결단과 노력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병원과 유명한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 자신도 치료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원하는 결과로 매듭지어 질것이라 확신 합니다.

대표적인 합병증: 우울증 (남 탓을 하고, 희망은 없다며 비관하고, 좌절과 포기상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골프 상식

나에게 맞는 드라이버 샤프트는?

글: 손상현(‘자카르타의 아침’블로거)



골퍼에게 적합한 드라이버 샤프트는 최대 비거리와 샷의 일관성, 자신감을 만들어 주는 반면에 적합하지 않은 샤프트는 오히려 슬라이스를 만들고, 비 거리에 손실을 내며, 스윙을 힘들게 한다. 골프 클럽의 엔진이라고 하는 샤프트는 스윙 속도, 임팩트 정확도 및 스윙 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루하루가, 전 홀과 지금이 다르다는 골프, 아마추어 골퍼에게 가장 중요한 샷은 어떤 샷일까? 비단 아마추어 골퍼뿐만 아니라 모든 골퍼에게 가장 중요한 샷은 드라이버 티샷이 아닐까. 스코어를 줄이려면 어프로치와 퍼팅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지만 그린 근처에 도착하기도 전에 트리플, 양파의 스코어가 예상된다면 어프로치와 퍼트의 중요성은 의미를 크게 잃게 될 것이다. 골프 실력이 향상되면서 드라이버에서 퍼트까지 각각의 클럽 샷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다.

‘드만싱’이라는 표현이 있다. **‘드라이버만 싱글’**이라는 표현을 줄인 표현이다. 슬라이스로 고생하던 초보 골퍼가 **‘드만싱’**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골프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중요한 드라이버 샷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샤프트를 골퍼의 신체적 조건이나 스윙 스타일에 맞게 장착을 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지만 아래 5가지 사항만 잘 체크해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달라진 드라이버 티샷 결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1. 샤프트 강도(shaft f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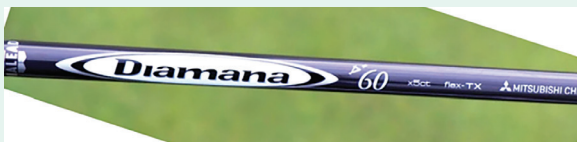
"샤프트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하면 R, SR 또는 S로 대답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샤프트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샤프트 강도이며, **스윙 스피드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스윙 패턴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도 샤프트 선택 기준에 있어 한 부분이 될 뿐이다. 예를 들면, 더 공격적인 스윙은 전체 스윙 속도가 비

숏하더라도 더 부드러운 스윙보다 더 단단한 샤프트가 적합할 수 있다. 또한 샤프트 브랜드 간에 표준화가 없기 때문에 같은 강도의 샤프트라고 하더라도 **브랜드마다 강도가 다를 수 있다.**

[스윙 스피드에 따른 샤프트 강도 선택]

스윙 스피드	적합한 샤프트 강도	대상 골퍼
시속 75마일(120km) 미만	여성(L) / 시니어(A)	스윙 스피드가 느린 골퍼
시속 75-95마일 (120~144.8km)	일반(R, SR)	중간 핸디캡 골퍼
시속 95-105마일 (144.8~169km)	딱딱한(S)	로우핸디 골퍼, 강한 히터 타입 골퍼
시속 105마일(169km) 이상	매우 뻣뻣함(X)	프로 골퍼

(오른 손잡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드라이버 샤프트가 너무 강하면 낮은 탄도, 낮은 스핀, 오른쪽으로 빗나가는 구질이 발생하는 반면에 샤프트가 너무 약하면 높은 탄도, 높은 스핀, 왼쪽으로 빗나가는 구질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 타이거 우즈가 사용하는 Diamana 60 x5ct flex - TX는 X보다 더 뻣뻣하고, 더 무겁고, 더 낮은 토크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샤프트보다 스윙속도와 비거리를 개선하는 데 최적의 옵션이라는 평가가 있다.

2. 샤프트 무게(shaft weight)

샤프트의 무게는 **샤프트의 강도(Flex)와 같은 샷 결과**를 만듭니다. 샤프트가 무거울수록 골프공은 낮은 탄도로 날아가고 스핀량이 적다. 반면에 가벼울수록 높은 탄도에 스핀량이 많아진다. 공이 왼쪽 방향으로 시작하거나 혹은 난다면 더 무거운 샤프트를 고려해야 한다. 샤프트의 무게가 스윙 스피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지만 샤프트가 너무 가벼우면 클럽헤드가 닫히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무게	강도					스윙스피드
	L	R	SR	S	X	
30g	☐					시속 75마일 (120km) 미만
40g		☐				시속 75-95마일 (120~145km)
50g			☐ 우			
				☐ 우		
60g						시속 95-105마일 (145~169km)
					☐ 우	
70g이상						시속 105마일 (169km) 이상

여성용 샤프트 무게 : 30~50g

남성용 샤프트 무게 : 40~80g

드라이버 무게가 조금이라도 무겁게 느껴지면 백스윙을 할 때 팔, 어깨 등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게 된다. 적당한 무게의 샤프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거리를 위해서 평소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거나 악력기 등을 이용해서 손의 악력을 키우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 클럽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스윙을 하면서 몸이 끌려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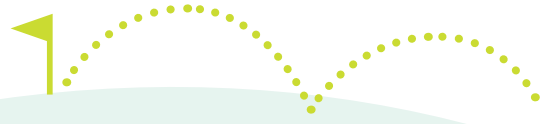
3. 샤프트 길이(shaft length)

골퍼의 신체적 조건(키, 팔길이)과 스윙 스피드, 스윙의 일관성, 볼의 탄도, 임팩트 시의 느낌 및 브랜드 선호도는 모두 자신에게 맞는 드라이버 샤프트를 찾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다. 개인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에게 맞는 샤프트 길이를 찾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피팅을 통해 샤프트의 적합한 길이를 찾는 것이 빠른 방법이다.

[샤프트 피팅 시 키에 따른 샤프트 길이]

- 190cm 이상 46"
- 170~190cm 45~45.5"
- 150~170cm 44~44.5"
- 150cm 이하 43"

아마추어 골퍼들이 드라이버 스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중 하나 짧은 클럽보다 긴 클럽을 제어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골퍼들이 약간 더 짧은 드라이버 샤프트에서 비거리와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골프숍에서 판매되는 드라이



버의 90%는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다.

세계 최고의 골퍼들 중 다수가 스톡 샤프트의 표준 길이보다 더 짧은 드라이버 샤프트를 사용한다고 한다. 특히 **키와 팔 길이는 적합한 샤프트 길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드라이버에는 샤프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스톡 샤프트’라고 한다. 단순히 표준으로 제공되는 선택 사항이다. 반면, ‘애프터마켓 샤프트’는 스톡 샤프트 외 모든 샤프트를 말하며, 스톡 샤프트에 비해 가격이 높다.**

LPGA 리더와 고 선수는 그립을 짧게 잡고 스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드라이버나 아이언 그립을 1인치(2.54cm) 정도 짧게 잡고, 웨지 샷 또는 벙커 샷을 할 때는 훨씬 더 짧게 잡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클럽을 짧게 잡을수록 임팩트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원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거리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그립을 1인치 짧게 잡으면, 드라이버는 10야드(9.14m), 아이언은 7야드 줄어든다) 그립에도 불구하고 리더와 고 선수는 165cm의 키와 크지 않은 체격에 클럽을 짧게 잡고도 드라이버 평균 거리는 230~240m 정도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임팩트의 정확도가 높아 그립을 짧게 잡아서 줄어드는 비거리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비거리를 포기할 수 없다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긴 샤프트가 짧은 샤프트보다 클럽 헤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4번 아이언의 클럽 헤드 속도가 웨지보다 빠르다) 이론적으로 비거리가 좋아질 가능성은 샤프트 길이가 길수록 더 높다. 다만, 더 빠른 클럽 헤드 속도로 견고한 컨택을 할 수 있고, 볼 스피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드라이버 비거리 증가가 골프 게임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왕립골프협회(R&A)는 48인치까지 허용하던 드라이버 샤프트 길이를 22년 1월부터 46인치로 제한했다.

4. 샤프트 킥 포인트(shaft kick point)

샤프트의 킥 포인트(또는 밴드 포인트)는 스윙을 할 때 샤프트에서 가장 많이 구부러지는 곳으로 샷의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 볼의 탄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킥포인트가 다른 샤프트를 고려해야 한다.

로우 킥포인트 (Low Kick Point)	미드 킥포인트 (Mid Kick Point)	하이 킥포인트 (High Kick Point)
샤프트의 헤드 쪽(아래쪽)	샤프트의 중간 부분	샤프트의 그립 쪽(위쪽).
높은 탄도, 더 많은 스핀 유도	중간 정도의 탄도	낮은 탄도와 스핀,
공이 더 쉽게 뜨는 느낌	안정적인 궤적과 비행 거리	맞바람 등 강한 바람에서 안정적인 탄도
스윙 스피드가 느린 골퍼	평균적인 스윙 스피드, 탄도의 골퍼	스윙 속도가 빠른 로우핸드 골퍼

*밴드포인트 vs 킥포인트

킥포인트(Kick Point)는 샤프트의 휘어짐을 나타내는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용어, 밴드포인트(Bend Point)는 실제로 샤프트의 물리적 휘어짐을 측정한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밴드포인트가 더 정량적, 공학적인 접근 방식이다. 밴드포인트는 스윙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밴드포인트가 낮으면 스윙을 할 때 더 부드러운 느낌을, 높으면 더 견고한 느낌을 받는다.

5. 샤프트 토크(shaft torque)

토크는 스윙을 할 때 골퍼의 느낌에 영향을 준다. **토크는 스윙하는 동안 샤프트를 비틀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토크가 높은 샤프트는 더 많이 비틀리고 낮은 토크 샤프트는 덜 비틀린다. 그래서 토크가 높은 샤프트는 토크가 적은 샤프트보다 더 탄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윙 스피드가 빠르거나 공이 왼쪽으로 가는 골퍼의 경우에는 낮은 토크의 샤프트를, 스윙 속도가 느린 스윙어와 슬라이스를 극복하려는 골퍼는 높은 토크 샤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모든 골퍼의 스윙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스윙을 할 때 샤프트의 느낌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으로 샤프트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 **높은 토크(4.0+도)는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스윙 스피드가 느린 골퍼들에게 적합**
- **낮은 토크(3.0도 미만)는 더 뻣뻣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빠른 스윙 속도와 더 많은 컨트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음**



Model	Flex	Length	Weight	Tip Flex	Butt Flex	Torque	Pre. Tip Length	Butt Diameter	Bend Point	Spine	Launch
VENTUS TR Black S	S	46	59	97	86	3.5	3.0	0.605	H	L	L
	X	46	60	92	80	3.3	3.0	0.605	H	L	L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 샤프트는 VENTUS TR 5-S BLACK인데 중고 제품을 구입했다. 리더야 고 선수처럼 약 1인치 짧게 잡는 편이며, 안정적인 페이드 구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사용해 본 드라이버 샤프트 중에서 부드러우면서 묵직하게 맞아서 날아가는 느낌이 좋아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드라이버 샤프트의 가격은 5만 원~150만 원 이상으로 다양하게 있다. 비슷한 조건에서 가격이 비싼 샤프트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은 크지만 가장 비싼 드라이버 샤프트는 극소수의 스윙 스피드가 빠른 골퍼에게만 필요하다. 샤프트를 가격대에 맞춰서 선택하기보다는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먼저 확인한 다음 본인에게 맞는 적정한 가격대의 샤프트를 선택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스윙에 가장 잘 맞는 샤프트**를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 총연합회, 제10대 회장단 출범

지난 3월 7일(금), 재 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 총연합회(이하 문예총)이 2025년 상반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제10대 회장단 및 임원진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김준규 회장이 제

10대 문예총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으며, 앞으로 함께할 신임 임원진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문예총은 현재 17개 단체, 약 250여 명의 회원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문화적 교류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문예총은 코로나 이후 한인 문화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앞으로 더욱 폭넓고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선언했다. 공연과 전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하여 한인 사회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 사회와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김준규 회장단 (재 인도네시아 문화예술 총연합회)은 2025년 제 8회 종합예술제를 기획 중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문화예술을 교합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제 2회 “1318 청소년 예술 경연대회”를 부활시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13살~18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코자 계획중에 있다.

김준규 회장은 취임사에서 “문예총이 단순한 예술 단체를 넘어, 한인 문화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후대에 영감을 전하는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문예총은 예술을 통해 한인 사회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길 것을 다짐했다.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문예총!
다가올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회장: 김준규(문인협회)

고문: 박의태(색소폰 동호회)

감사: 유은영(음악협회), 김경애(한지공예)

수석부회장: 정방울(무용단), 김혜정(기획부)

전시부회장: 오순옥(캘리협회)

공연부회장: 강아름(무용단)

-제공:사무국장 최하진(문인협회, 캘리협회)

alennachoi2@gmail.com

구룡포 사람들

김준규(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



구름 위에 숨어있던 태양이 서쪽 바다에 폭포수처럼 빛을 뿌릴 때, 구룡포의 붉은 낙조는 물 위에 꿈벽 잠기고 해안가의 철쭉 같은 어둠은 검은 파도를 타고 점령군처럼 육지를 향하여 밀려오고 있었다. 점멸하는 똑딱선의 등불이 반딧불처럼 방파제를 돌아 꾸역꾸역 해안선으로 들어온다.

어선에서 하루의 조업을 끝내고 하선하는 선원들이 어둠을 헤치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부산한 저녁이다. 힘줄이 불거진 팔뚝으로 거친 파도와 한바탕 싸움을 끝내고 가족이 기다리는 귀가의 발걸음!

검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해안의 상가는 짧은 저녁, 성시(成市)를 위해서 분주히 돌아간다. 네온 불이 점멸하는 식당과 선물집에는 웅성웅성 선원들이 모여들고 외지에서 온 자동차로 거리는 만원이다. 곧 짙어지는 어둠을 피하여 시장기를 해소하고 한잔 술로 피로를 털어 버리려는 사람들로 식당 안이 북적인다. 우리 일행이 작은 선물집의 둥근 식탁에 자리를 잡고 몇 순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선원으로 보이는 일행이 시끌벅적 들이닥쳤다. 턱수염이 덩수룩하고 눈썹 선이 유난히 굵은 사나이가 일행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아 선장인 듯하다. 선장은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흘리며 거친 손등으로 선원들을 안내한다.

“아주머니! 여기 과메기하고 소주 좀 먼저 주이쇼!”

“이봐! 술라이만, 자네도 한잔해야지?”

‘술라이만’이란 이름은 분명 인도네시아 사람이었다. 인도네시아서 40년을 살아온 나는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많은 수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에서 어업에 종사한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낯선 외국 그것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원 생활의 고초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일부의 고용주는 외국인 선원들을 학대하고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내가 사업차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던 시기인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아메리카의 꿈을 놓지 않았다. ‘미국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부차적인 사안이다. 한국에서 교수로 살던 사람도 미국에 가면 접시를 닦고 고된 일을 하며 살던 시절이 있었다. 부러움의 대상인 선진국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감내해야 했다.

어느 시대이건 나라가 가난하면 국민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공식이 아니겠는가?

인도네시아 근로자에게 물어보았다.

Gimana kerja di kapal laut baik saja?(어선에서 일하는 데 아무 문제 없나?)
급료는 제대로 주는지, 의료에 대한 처우는 잘 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고, 대답은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 대답을 들었다.

인니어를 사용하는 동안 선장은 두 눈을 껌벅이며 그와 나를 번갈아 바라본다. 나는 선장에게 질문 사항과 답변 사항을 설명하고 인니어를 잘 돌봐주니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식당 안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차고 알아들을 수 없는 잡담이 난무한다. 한쪽 테이블에선 꺄꺄 웃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선원이 지그재그 엷박자로 소리 지르듯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우리 일행은 소음을 피하여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길을 걸었다. 가을의 초입에 들어선 갯바람이 술기운을 씻어낸다. 짙바람을 타고 바다 위를 스멀스멀 엉기는 구룡포의 땅거미! 까마득한 하늘의 별빛은 머나먼 추억의 호롱불처럼 줄린 듯 가물거리고 사람이 모여드는 구룡포엔 밤이 깊도록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단편소설] 조용한 귀향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2025년 3월, 자카르타

닝시는 새벽부터 창가에 앉아 고향 브레베스의 날씨를 확인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Idul Fitri)은 한 달 간의 금식(라마단)을 마친 뒤 가족과 함께 축하하는 날로, 전국이 들쭉이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무딕(Mudik)’이라 불리는 귀향 행렬이 시작되며, 수천만 명이 고향을 찾아 떠난다. 매년 이때면 닝시도 이미 자카르타를 떠나 고향길에 올랐을 터였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저축은 바닥났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THR(명절 보너스)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엄마, 우리 올해도 못 가는 거야?”
열 살 난 아들 피르만의 눈빛에는 어른스러운 이해심과 아이 특유의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우리 할머니는 영상통화로도 반가워하시니까. 대신 맛있는 르바란 음식은 꼭 해먹자, 응?”
닝시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고향 마을의 꺼뚜뻗 냄새, 아이들의 폭죽 소리, 친척들과의 포옹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피르만은 이미 전날부터 틱톡으로 ‘르바란 브이로그 만들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은 세대를 뛰어넘었다.



 르바란 전날 밤, 부엌의 시간

닝시는 깊은 숨을 쉬며 부엌에 들어섰다.
싱크대 위에는 닭 간, 작게 썬 감자, 샬롯, 붉은 고추, 룡꾸아스, 그리고 코코넛 밀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늘 그녀는 르바란 아침을 위한 전통 반찬인 삼발 고렝 아띠(Sambal Goreng Ati)를 만들기로 했다.
피르만이 재료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물었다.
“엄마, 이거 생강 아니에요?”
닝시는 손에 든 조각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달라. 이건 룡꾸아스(lengkuas)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갈랑갈(galangal)

이라고 해. 생강보다 향이 더 강하고 시원한 맛이 나서, 인도네시아 요리에 자주 써. 특히 삼발이나 오뎀 같은 음식엔 꼭 필요하지.”

피르만은 코끝을 가져다 대고 쿵쿵 냄새를 맡았다.

“으, 특 쏘는 냄새! 하지만 신기해요.”

닝시는 웃으며 감자를 노릇노릇하게 튀기고, 간도 익혀 따로 놓았다.

팬에 고추, 샐롯, 마늘, 그리고 다진 룡꾸아스를 넣고 정성스레 볶았다.

달궈진 기름에서 퍼지는 매콤한 향과 함께, 룡꾸아스 특유의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이거 매워요?” 피르만이 물었다.

“응, 조금. 하지만 꺼뚜삐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지.”



가족의 꺼뚜삐 추억

주방 한쪽에서는 꺼뚜삐(ketupat)이 천천히 찌지고 있었다.

꺼뚜삐는 야자수 잎을 엮어 네모난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 밥과 양념한 고기를 채워 넣은 음식으로,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르바란 음식이다.

닝시는 조심스럽게 손에 남은 야자수 잎 하나를 펼쳐 보았다.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스르르 떠올랐다.

르바란을 앞둔 어느 해 저녁, 고향집 마루에 돛자리가 깔리고 온 가족이 모였다.

할머니는 오래된 대나무 바구니에서 야자 잎 뭉치를 꺼내오셨고, 고모는 아이들을 불러 하나씩 손에 쥐여 주었다.

“이게 뭐예요?” 꼬마 닙시는 처음 만져보는 얇고 질긴 잎사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이건 야자 잎이야. 우리가 이것로 밥주머니를 만들거란다.”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다.

어른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갔고, 아이들은 잎을 엮다가 헝클어뜨리기 일쑤였다.

그러면 고모가 웃으며 도와주고, 사촌들은 서로 엮은 모양을 자랑하듯 보여주며 깔깔 웃었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끓이는 오뎀 아얌 냄새까지.

그 풍경은 닙시의 기억 속에서 매년 르바란이 가까워질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었다.

“엄마, 이거 만들기 어려워요?”

“처음엔 어렵지만, 손에 익으면 재미있어.

옛날엔 할머니랑, 고모랑, 온 가족이 모여서 꺼뚜삐를 엮었지.

모양이 조금씩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똑같았어.”

닝시는 피르만에게 야자 잎을 하나 건넸다.

“우리도 한번 엮어볼까? 모양은 서툴러도, 이건 우리 가족의 꺼뚜삐니까.”

피르만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넴비에서는 오뎀 아얌(opor ayam)이 부드럽게 끓고 있었다.

닭고기에 코코넛 밀크와 향신료를 넣어 푹 고아서 만든 르바란 대표 요리다.

한편, 옆에 있는 프라이팬에서는 초록빛의 깡꿍(kangkung)이 센 불에 볶아지고 있었다.

마늘과 삼발, 간장 소스를 더해 만든 깡꿍볶음(kangkung tumis)은 밥반찬으로 사랑받는 국민 요리다.



“깡뽕볶음은 아삭아삭하고 삼발 고렝 아띠랑도 잘 어울려. 오늘 진짜 제대로 르바란 상이 되겠다.”
그날 밤 부엌에는 고향의 냄새가 가득했다. 요리하는 닝시의 얼굴에 할머니의 미소가 겹쳐 보였다.



나눔의 마음, 자깟

식사를 준비한 뒤, 닝시는 스마트폰을 꺼내 Baznas (Badan Amil Zakat National Agency) 앱에 접속했다.

르바란을 맞기 전 무슬림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자깟 피트라(Zakat Fitrah)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자깟 피트라는 라마단 한 달 동안의 금식을 완성하는 의무 기부로, 모든 무슬림이 납부해야 하는 기부금이다. 가난한 이웃들도 르바란 아침에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연대의 실천이다.

닝시는 화면을 보여주며 피르만에게 말했다.

“이건 우리가 오늘 맛있는 음식 먹는 만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도록 나누는 거야.”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그래. 라마단은 금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

피르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누군가의 식탁이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차올랐다.



르바란 아침, 그리고 기도

다음 날 아침, 닝시는 피르만과 함께 거실 카펫 위에 자리를 깔고 이드 기도(Shalat Id)를 드렸다. 라마단을 마무리하며 드리는 이드 기도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예배로, 보통은 모스크나 공터에 수천 명이 모여 함께 드리지만, 올해도 그들은 온라인 중계로 참여했다.

기도가 끝나자 피르만은 두 손을 모아 엄마에게 다가왔다.

“모혼 마압 라히르 단 바뎸(Mohon maaf lahir & batin), 엄마.”

닝시는 아들의 손을 감싸며 웃었다.

“잘했어, 피르만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지?”

“응! 이둘 피트리(Idul Fitri). 금식 끝났다고 축제하는 날이잖아!”

“그래, 맞아. ‘Idul’ 은 축제, ‘Fitri’ 는 순수함이나 본래의 상태를 의미해. 그러니까 오늘은 단 순히 금식을 마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인 거야.”

피르만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엄마, 내가 전에 괜히 짜증내고 말 안 들은 거... 그것도 용서해?”

닝시는 아들을 꼭 안았다.

“물론이지. 엄마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덧붙였다.

“‘모혼 마압 라히르 단 바뎸.’ 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lahir)뿐 아니라, 마음속 감정(batin)까지도 용서받고 용서하는 진짜 르바란의 말이야.”



영상통화 속의 고향

“할머니, 슬라맛 이둘 피트리 (Selamat Idul Fitri)! ”

영상통화 속에서 고향의 어머니는 흐린 눈으로 손을 흔들었다.
 브레베스의 낡은 거실 너머로 보이는 바나나잎 그림자는 익숙하면서도 아득했다.
 곁에는 닝시의 남동생도 있었다. 그는 최근 실직 후 고향에 머무르고 있었다.
 “요즘 힘들지? 괜찮아. 우리 건강한 게 어디야.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까 좋네.”
 닝시는 울컥했지만 웃었다. 함께 모이지 못해도, 마음은 여전히 하나였다.

브이로그의 마무리

밤이 되자, 피르만은 하루를 영상으로 정리했다.
 영상에는 엄마와 함께 쿠키를 굽는 모습, 삼발 고렝 아띠를 만드는 장면,
 깡궁 볶음이 완성되는 과정, 온라인 기도와 영상통화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자막이 떴다.

“우리는 올해 고향에 가지 못했지만, 따뜻한 마음과 전통은 그대로 지켰어요.
 진짜 르바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마도,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 있겠죠.”

닝시는 그 영상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깡궁 볶음과 삼발 고렝 아띠, 그리고 정성으로
 만든 꺼뚜빳과 오뎀르 아얌이 놓여 있었다.

에필로그

2025년의 르바란은 조용했다.
 무딕은 줄었고, 소비도 위축됐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단장하고,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자캇을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신앙과 가족애를 되새겼다.
 변한 건 방법일 뿐, 르바란의 본질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끝]

노트

이 소설 《조용한 귀향》은 2025년 인도네시아 르바란의 풍경과 그 속에 담긴 가족애, 신앙, 음식, 그리고 변화를 따뜻한 이야기로 엮고자 한 작은 시도입니다.
 올해 르바란을 앞두고, ‘무딕이 줄고, 소비도 줄었지만 여전히 풍성한 마음이 살아 있다’ 는 여러 미디어 기사를 접하면서,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해보았습니다. 떠나지 못한 사람들, 집에서 명절을 준비하는 어머니, 소셜미디어로 마음을 전하는 아이들. 방법은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슬라맛 이돌 피트리(Selamat Idul Fitri)’란 말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용서하고 께안을 수 있는 그런 르바란이 되기를 바랍니다.





Hyaang, the yoga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가버디 michelle입니다.

안녕 반가워요, 향기님들~~~

4월입니다.

2025년 된지 벌써 4분1이 지났어요. 매일매일 성장하고 계시죠?

그러리라 믿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건강.

돈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근육 저축!

자 이번 달 건강통장에 근육을 보아서 부자 되어보아요, 향기님들 화이팅!

목표동작은 삼각자세 비틀기 자세입니다.

삼각자세에서 팔을 반대쪽으로 넘기고 양팔을 일자로 뻗는 자세



바로 이 자세!

파리브르타 트리코나사나(Parivrtta Trikonasana),
Revoloved Triangle pose 라고도 해요.

이 동작을 하면

- ◆엉덩이와 척추유연성 증가
- ◆신체 밸런스 증진
- ◆복근강화
- ◆집중력 증가
- ◆소화기능 개선(모든 트위스트 자세)

유익한 점이 정말 많지요? 1타 5피. 안 할 이유가 없죠. 안하면 손해니까요.

난이도 중급정도 되는데요, 제 가이드대로 따라오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전체 동작, 천천히 해도 15분 안팎이면 됩니다.

자, 매트잡고 펼쳐!

Phase 1 워밍업



1. Adho Muka svanasana
(다운독)



2. Santolasana(플랭크)

1.오션웨이브(다운독-플랭크)

2.다운독-플로팅 테이블탑

◆(다운독x플랭크) 1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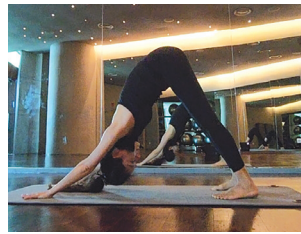
오션 웨이브로 몸에 시동을 걸고

◆다운독; 손바닥밀착시켜 앞으로 밀기, 코어
에 힘, 어깨와 귀 멀게

◆플랭크; 팔 곧게 바닥과 직각, 코어 무너지
거나 솟지 않아, 어깨 움츠리지 않습니다.

- ◆(다운독×플로팅 테이블탑 Floating table top) 10회
- ◆다운독
- ◆테이블탑에서 무릎을 살짝 떼 10회 반복, 어때요?
- 몸이 서서히 데워지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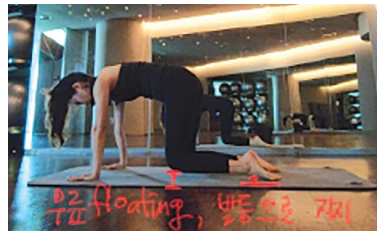
- ◆발등으로 버티는 플로팅 테이블탑으로 마무리 발등을 펴고 버티세요. 10초만!



3. Adho Muka Svanasana
(다운독)



4. Bharmanasana
(무릎 떼고 테이블탑)



5. Bharmanasana
(무릎 떼고 발등 편 테이블탑)

다음은 Vinyasa 요가 수련 중 다음 흐름으로 넘어갈 때마다 반복되는 트랜지션 동작
★ Vinyasa Flow



6. 다운독



7. 뒤통치 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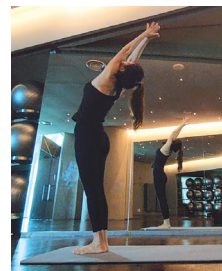
8. 무릎 구부리고 시선은 손과 손사이



9. 앞으로 점프, Artha Uttanasana
무릎 펴고 등 펴고 손은 바닥이나
종아리 짚고



10. Uttanasana
(상하체 밀착)



11. Urdhva Hastasana
(야자수자세)

Phase 2 다리 스트레칭

몸이 따뜻하게 데워졌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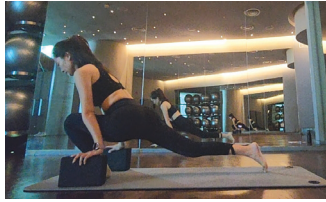
1. Runner Lunge - 아래, 위/ 앞, 뒤로 스트레칭
2. Lizard Lunge
3. Lizard switching 발바꿔가며

◆Low Lunge Str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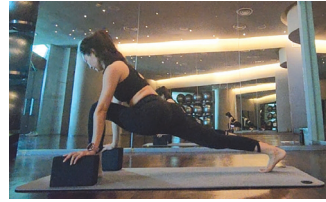
1. Runner Lunge

위 아래로 바운스



2. 몸 앞으로 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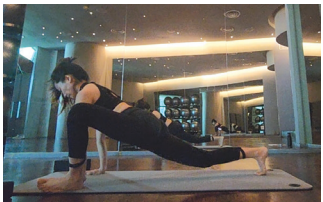
엄지발가락으로 짚으며 앞으로 보내기



3. 몸 뒤로 밀기

발가락 꺾고 꾸욱 누르며 뒤로 보내기

◆Lizard Lunge(Utthan Pristhas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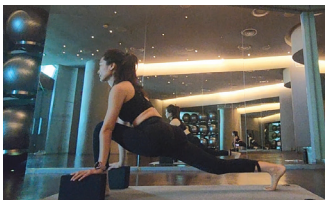
4. Lizard Pose variation 도마뱀자세 변형

블록을 제거하고 오른 손, 발 위치를 바꿔 짚고, 골반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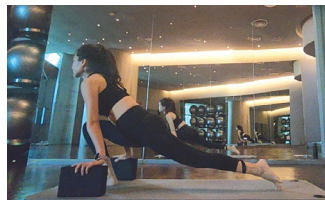
5. Down Dog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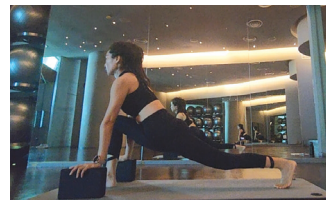
1. Runner Lunge

위아래로 바운스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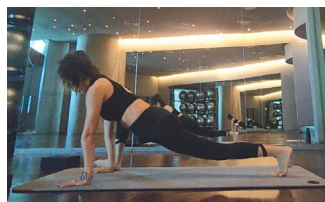
2. 몸 앞으로 밀기

엄지발가락으로 짚으며 앞으로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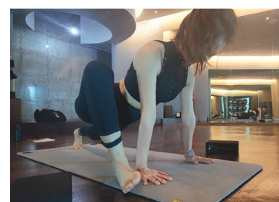
3. 몸 뒤로 밀기

발가락 꺾고 꾸욱 누르며 뒤로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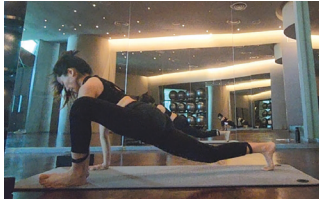


4. Lizard Pose Variation 도마뱀자세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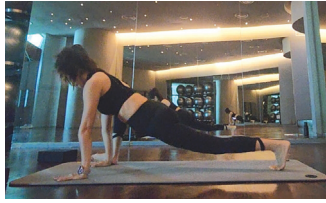
블록을 제거하고 오른 손, 발 위치를 바꿔 짚고, 골반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 **Lizard switch** 다리 바뀔가며 도마뱀자세! 도마뱀처럼 폴짝폴짝 뛰어도 좋아요



6. 왼쪽 도마뱀



7. 오른쪽 도마뱀

Hop Hop!

Phase 3 목표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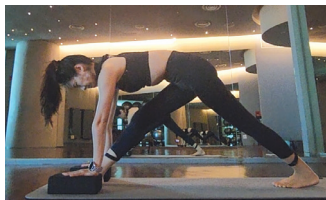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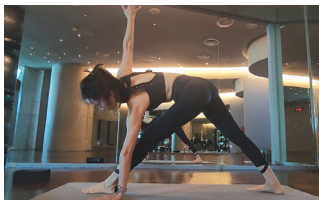
드디어 목표동작!

1. Pyramid Pose 피라미드
2. Triangle Pose 트라이앵글
3. Revolved Triangle Pose 회전된 삼각형

◆ **Parsvottanasana** 피라미드 자세 (블록 사용 OK)

- ◆ 앞발 90도 뒷발 45도로 짚고,
- ◆ 앞발목 90도로 flex

(발목 들기) 3초 → 바닥에 내려 햄스트링에 자극 느끼게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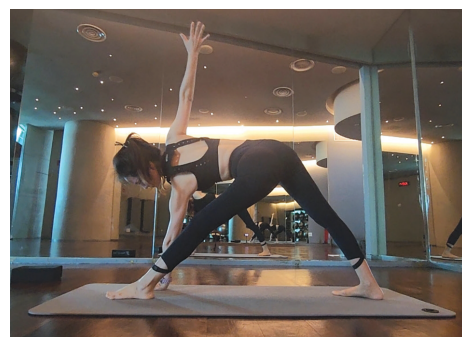


◆ **Trikonasana** 삼각자세 (블록 사용 OK)

- ◆ 내디딘 발의 반대쪽 손을 하늘로 높게 들어
- ◆ 골반이 팔러가지 않게 (골반은 계속 아래를 향하게)
- ◆ 시선은 아래를 향하다가 균형이 잡히면 위를 바라보세요.

◆ **Parivrtta Trikonasana** 회전삼각자세

- ◆ 뺨은 손 다시 바닥에 내렸다가
- ◆ 왼손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 ◆ 오른손을 하늘 위로 쪽 뺨고
- ◆ 골반이 열리지 않게 주의하고 골반은 바닥을 향하게
- ◆ 시선을 바닥을 보다가 균형이 잡히면 하늘을 보세요.



◆반대 쪽도 같은 방법으로,

다운독 → 3다리 자세(오른다리를 뒤로 쪽 뺐었다가) → 손과 손사이로 내려놓기



- ◆ **Trikonasana** 삼각자세 (블록 사용 OK)
내디딘 발의 반대쪽 손을 하늘로 높게 들어
- ◆ 골반이 떨어가지 않게 (골반은 계속 아래를 향하게)
- ◆ 앞발목 90도로 flex
(발목 들기) 3초 → 바닥에 내려
- ◆ 시선은 아래를 향하다가 균형이 잡히면 위를 바라보세요.

- ◆ **Trikonasana** 삼각자세 (블록 사용 OK)
내디딘 발의 반대 쪽 손을 하늘로 높게 들고
- ◆ 골반이 떨어가지 않게 (골반은 계속 아래를 향하게)
- ◆ 시선은 아래를 향하다가 균형이 잡히면 위를 바라보세요.



- ◆ **Parivrtta Trikonasana** 회전삼각자세
- ◆ 뺀 손 다시 바닥에 내렸다가
- ◆ 오른손을 왼쪽으로 보내고
- ◆ 오른손을 하늘 위로 쪽 뺀어
- ◆ 골반이 열리지 않게 주의하며 골반은 바닥을 향하게
- ◆ 시선을 바닥을 보다가 균형이 잡히면 하늘을 보세요.



Phase 4 Cool Down

차투랑가 & Vinyasa Flow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대단하십니다!

이제 몸이 말랑말랑 해졌겠죠.

차투랑가 단다사나로 깔끔하게 마무리, 좋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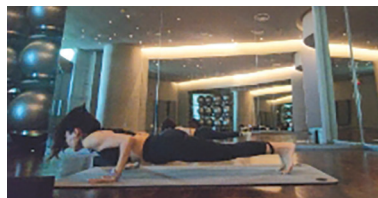
1. Chaturanga Dandasana (팔굽혀펴기와 비슷한 형태)
2. Vinyasa Flow
3. Savasana (요가수련의 마무리 휴식자세)



1. Down d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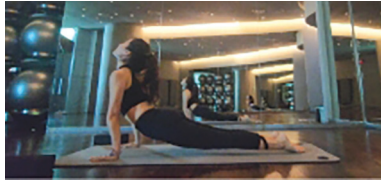


2. Pl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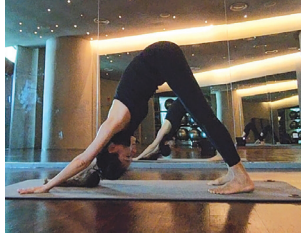


3. Chaturanga Dandasana
(차투랑가 단다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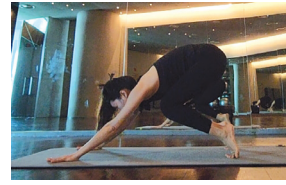
◆ Chaturanga Dandasana & Vinyasa Flow



4. Upward Facing dog



5. Down Dog 하다 뒤통
치 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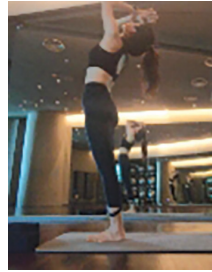
6. 무릎 구부리고 손과 손
사이 보고



7. 앞으로 점프
(조용~히 고양이 점프
할 수 있죠?)



8. 야자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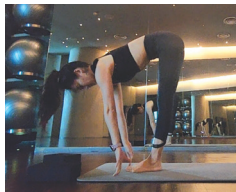
9. 3rd eye
(이마에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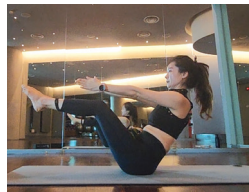
10. Uttanasana(Forward fold)

◆ Savas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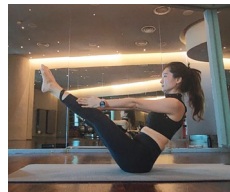
사실은 이 자세를 하기 위해 앞의 모든 수련을 한 거라고 해도 무방해요~ 호호
모두가 사랑하는 사바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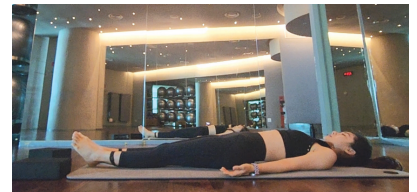
1. Ardha Uttanasana
(반선 전굴자세)



2. Ardha Navasana
(반 접은 배 자세)
등을 곧게 펴야 해요,
일단 무릎을 구부린 후에



3. Navasana 배 자세
무릎을 펴고
등을 꼿꼿하게 유지



4. Savasana (시체자세)
그대로 뒤로 천천히 누우시고
손바닥을 하늘 위로,
온 몸의 힘을 빼세요.

Namaste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을...

Yoga instructor,
Michelle Yoga class <Hyaang, the Yoga>
운영그룹 및 개인수련 문의는 카톡 'tidapapa'로 문의주세요





"땀방울을 사랑할 거다"

"스포츠는 살아있다. 고로 나도 살아있다!"

오늘도 운동으로 시작하는 하루, LET' S GO!

20대엔 수영, 등산, 인라인스케이트 그리고 겨울이면 나를 미치게 했던 스노보딩!

인도네시아로 오기 전, 태국에서 10년을 살면서 스쿼시와 수영, 스노클링, 골프를 즐겼어요.

하지만 7년 터울의 딸 둘을 키우다 보니, 운동은 커녕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어요.

근육은 빠지고, 체력은 바닥나고,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40대에 접어들면서 알게 되는 불편한 진실.

이영미 (만 46세, 땅그랑 알람수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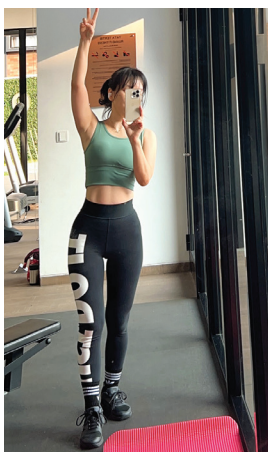
- 본캐 한인뉴스 편집위원, 부캐 동화작가



스노보드에 미쳐있던 20대가 40대가 되면



코로나 멀치 시절



매일 운동 후

"규칙적인 운동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매일 운동 프로젝트!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아름다운 헬스장>을 소개합니다.

아파트 내 작은 헬스장. '있는 거 빼고 다 없는 곳' 이에요. 러닝머신과 사이클 한 대가 다예요. 하지만 전면 유리 덕분에 사방이 뽕 뚫려 있어 개방감 하나는 최고예요.

몽게구름 피어나는 파란 하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의 자랑인 커다란 수영장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햇빛이 직격타! 아이들 도시락을 싸 보낸 후 헬스장에 내려가면, 이미 태양은 창문을 뚫고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가 헬스장인가, 사우나인가. 결국 아파트 오피스에 건의해 차양을 다는 데 성공했어요.



여행 가서 운동하면 더 재밌어



글 쓰다 안 풀릴 때,
난 운동을 해



<하루 운동 코스>

1.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 15개씩 3세트
2. 카즈하 복근운동 - 10분
3. 클로이팅 복근운동 - 10분
4. 전신 유산소 운동 - 10분
5. 섯업 - 15개씩 10세트
6. 소미핏 팔운동 - 10분
7. 마무리 레그레이즈 - 15분

토요일에는 첫째 딸과 복싱을 해요. 동화나 청소년 소설이 잘 안 풀릴 때면 헬스장에 내려가 섯업이나 AB 슬라이드를 해요.(딸들이 엄마 무섭대요 ㅎㅎ) 땀을 흘리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요.

아는 동생이 물었어요.

“아침에 도시락 싸서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기운이 빠져서 헬스장까지 가기 귀찮아요.”

그래서 비법을 알려줬어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 우리에게선 선택권이 없거든! 갈까 말까 고민될 때는 가고,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해. 그리고 나를 위한 한 마디, 나는 할 수 있다!” (친구들이 무섭대요 ㅎㅎ)

제가 20대부터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땀방울을 사랑할 거다."

"독서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믿어보세요. 그게 결국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니까요.



엄친아(엄마 친구 아파트) 도장 깨기! 50대가 되기 전, 바디프로필을 찍기 위해 오늘도 땀방울을 사랑할래요.

글로벌 코리아, 우리가 주역



황다인 (BSJ, British School Jakarta, 12학년)

2016년 12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막 마치고 이틀 뒤, 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며칠 뒤인 다음 해 1월,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대답하기엔 너무 버거운 질문들을 쏟아 내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국제학교에 입학해 정말 몸도 마음도 정신도 너무나 힘든 시기를 눈물과 함께 보내고 있었다. 그 때 내 옆에서 통역도 해 주고 점심시간에 같이 앉아 한국어로 이런 저런 학교 생활을 이야기해 주던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그 고된 시간을 버텨내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점점 외국생활이 익숙해 질쯤 이제는 한국에 있는 한국친구들의 유행어를 따라잡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한국친구들, 한국문화에 항상 목마름이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 아이들에게 모국 문화 체험을 시켜준다는 글을 보게 되어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지원서 작성을 준비했다. 두둥!! 드디어 결전의 순간. 호기롭게 등록을 했으나 막상 새로운 친구들과 5박 6일을 보낸다 생각하니 설렘만큼 걱정, 두려움도 함께 몰려왔다. 나와 같은 방을 쓸 친구는 나와 마음이 잘 맞을까? 라는 걱정부터 내가 가는 경북 봉화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 라는 기대감까지.....

이 모든 감정을 잘 버무려 내 마음속에 잘 넣어 두고, 같은 한국인 친구들이지만 각기 다른 나라, 환경에서 자랐으니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잘 지내야지! 라는 굳은 결심을 내 여행 캐리어에 함께 담았다.

나의 픽업장소는 김포공항. 김포공항에 가 보니 모두 새로운 얼굴이었고, 난 누구와 친해지려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친구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 처럼 김포공항에서 본 그 친구들은 그냥 그냥 지나가는 존재였다면 5박 6일 내가 매일 부르던 그들을 보면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함께 보여 진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나라에 돌아갈 때 안전하게 가라는 안부인사를 나누는, 인스타그램에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는 특별한 사이가 된 것이다.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서울 또는 친할머니가 계시는 대전이 전부인 내게 경상북도라는 곳은 새로운 곳이기에 장장 5시간 동안의 고속버스 이동 중에도 지치지 않았다. 봉화에 도착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그들이 느끼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인지 충격을 먹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쇼핑물은 있는지, 한국음



식을 접하지 못해 먹거리가 힘들겠다는 등의 질문을 친구들이 쏟아냈다. 이걸 분명 내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기 전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 친구들에게 인도네시아 현실에 대해 차분히 알려주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이고, 산림이 우거져 있어 대부분 그런 자연환경을 생각하겠지만 수도인 자카르타는 국제 도시로 굉장히 크고 발달되어 있다고... 비록 인터넷이 한국보다 느리고 시스템이 느리기도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그 나라의 특징에 맞춰 ‘느림의 미학’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또한 ‘무궁화’라는 큰 한국 슈퍼체인이 있어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제품을 구할 수 있다고... 나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인도네시아와 너무나 달라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분명 못 사는 사람도 많고, 빈부격차도 크고, 인프라가 제대로 곳곳에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자원이 풍부하기에 언젠가는 도약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내비쳤다.

Part 1. 육개장, 육(六)! 개장(開場) (육조, 글로벌장을 열다)

그 뒤, 우리는 8개 조로 흩어졌다. 나는 6조에 배정되었다. 6조에는 외국에서 온 아이들과 마산에서 온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팀 단합을 위해 팀 이름을 정하기로 했다. ‘육개장은 어때?’

라는 선생님의 제안에 우리들은 ‘육개장’은 너무 아재장난이라며 선생님을 나무랐지만 생각해 보니 육개장은 깔끔하면서 얼큰한 맛이고 짭 맛 같으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다양한 종류의 맛을 가진 것이 마치 우리 팀의 다양성을 뜻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육개장’ 조로서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서로의 맛은 존중하자는 규칙을 세워 5박 6일 동안 재밌게 놀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실컷 놀다 보니 이틀 후면 뿔뿔이 전세계로 흩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마지막 날밤에 있는 프로젝트 랩 발표를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 ‘Project Lab’은 영상, 음악, 마임, 미술, 동화책 중에 원하는 분야에 들어가 그 분야에 알맞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였다. 완성된 프로젝트는 캠프가 끝나기 전날 발표될 예정이었다. 영상 편집에 관심있던 나는 영상팀에 들어가 봉화에서 있었던 일상을 비디오로 담기로 했다. 우리 그룹 이름은 ‘삼시새끼기’였다. 그 의미는 삼시새끼를 챙겨먹듯, 우리의 삼시를 새기자는 것이다.

마지막 날 밤이 왔을 때, 우리 그룹의 영상이 공개되고 반응은 아주 좋았다. 친구들은 영상을 보고 캠프가 더 생각날 것 같고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비록 5박 밖에 보지 않았지만 정말 정이 들어버린 아린, 예린, 권별, 아진, 근영이를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7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야만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슬퍼 눈물이 났다. 눈물바다가 되어버린 연수원 안에서 ‘오늘은 통금 12시 10분까지다!’라는 선생님 말씀에 우리는 흘리던 눈물을 닦고 마지막 날밤을 위해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과자를 들고 내 방인 317호에 모였다.

317호 안에서는 5명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퍼져 나갔다. 미국, 인도네시아, 마산, 점점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온 우리지만 그때만큼은 10년 지기 죽마고우 같았다. 우리는 각자가 좋아하는 연예인, 학교생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유튜브에서 노래를 켜놓고 따라 부르며 춤도 추며 놀았다. 하지만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시간이 12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 걸 알게 된 내 친구는 ‘진짜 마지막이네...’ 라며 울상을 지었다. 별리더선생님들이 방문을 두드리며 ‘이제 각자 방으로 돌아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쉬운 표정으로 ‘잘 가.....’ 라며 서로를 벌써 그리워하고 있었다.

마지막날 아침, 옷을 개고 가방을 정리하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구나’ 라는 심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항상 내 친구들과 나의 양말, 옷, 고데기, 화장품으로 어지러져 있던 방이 이제는 다시 깨끗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힘이 쭉 빠진 채 카드를 뽑았다. 캐리어를 들고 내려가는 한 계단마다 한숨을 내쉬었다. 내 방은 다른 친구들보다 높이 있어 떨어져 있다고 투덜대던 첫날이 기억났다. 그 날로 간절히 돌아가고 싶었다. 타임머신이 내 눈앞에 있으면 하고 비는 와중에 나는 일층에 내려와 있었다.

우리는 강당에 모여서 폐막식을 진행했다. 폐막식에서는 롤링페이퍼와 인사할 시간이 있었다. 나보다 한 살 어린 동생 근영이는 ‘언니 또 봐요!’ 라며 나를 꼭 안아 주었고, 미국에서 온 동갑 친구 아린이는 ‘우리 또 언제 봐?’ 라며 울고 있었다. 나도 그들을 꼭 안아주며 ‘꼭 또 만나자’ 라며 다독여주었다. 눈치 없는 버스는 너무 빨리 도착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롤링페이퍼를 다 적지도 못하고 인스타그램 아이 디도 모두와 다 교환을 못한 채 나는 김포공항행 버스에 올라 탔다. 하지만 괜찮다. 캠프에 있던 모든 친구들과의 추억은 이미 마음 속에 저장해 두었으니까.....

사실 이 캠프는 친구들의 추천으로 한국 문화 체험이나 하고 오자는 마음으로 간 것이다. 그러나

캠프는 기대 이상이였다. 내 생애 최초 마산 친구도 만들었고 미국 친구도 만들었고 러시아 친구도 만들었다. 이 캠프는 오로지 문화 체험,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곳곳에서 온 아이들과 친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친구들만 사귀던 나에게 글로벌 코리안으로 거듭날 기회를 준 것이다. 나는 우리 6조의 이름 ‘육개장’ 처럼 다양한 맛이 있고 색깔이 있는 글로벌 코리안이 되고 싶다.

Part 2. OK Friends! 역사의 길 위에서 한국을 탐구하라!

다양한 나라에서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우리는 더욱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2022년의 모국연수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든 나는 2023년 모국 연수 공고가 나오길 기다리며 공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했다. 이번엔 어느 나라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온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설레는 마음에 공지가 나올 때까지 내 가슴은 두근두근.

그래도 두 번째 참가하는 연수다 보니 새로운 친구들과 만남이 서먹하기 보다는 ‘우리는 곧 친해져서 다같이 깔깔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 라는 마음으로 한 친구 한 친구의 첫인상을 기억하려 했다.

또한, 내가 배정되었던 목포 그룹은 모국연수 3일 차에 목포 근대 역사 공간을 방문하였다. 그 곳에서 우리는 1944년 일본군 150사단 사령부가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유달산 방공호를 보았다. 방공호를 만들기 위해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한 일본인들 조각상을 보며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쓰라리기도 했다. 초등교육을 한국에서 받은 나 역시 이러한 사실이 마음 아팠지만, 이 비참한 역사를 처음으로 접한 친구들 역시 충격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Lab을 통해 한민족의 연합



과 우리나라 문화를 접하는 활동을 하였다. 우리는 아리랑을 리믹스한 노래에 맞춰 태극기를 들고 안무를 하는 활동하였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부분을 태극기를 흔들면서 무대 위를 활보하며 우리는 유관순 열사가 느꼈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느낄 수 있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친구들과 나는 마치 삼일절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용감한 대한민국 시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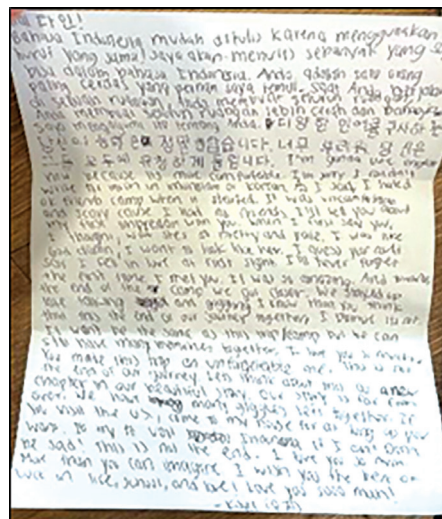
독립 기념관에서는 한국의 전통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뿔과리를 울리며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묻혔으리라 생각하니 보다가 가슴이 갑자기 울컥해졌다. 또한 전시되어 있는 것 중 한국어로 156년 전에 쓰인 글을 보니 내가 평소에 부모님과 사용하는 한국어가 다시 보였다.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만 여겨지던 것이 옛날에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우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또한,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뿌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문화를 지켜 주신 모든 독립투사분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연수는 은지라는 친구와 뜻깊은 우정을 나누며 더욱 소중한 순간이었다. 나와는 다르게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현재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는 나와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기도 했지

만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도 함께 사용하며 우리가 함께 아는 한국의 K-Pop, 드라마,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와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해 온 다양한 에피소드에 대해 손뼉을 치며 서로를 공감해 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 헤어지는 날, 이 친구는 내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편지안에는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영어로 빼곡히 칸을 채운 은지의 마음이 담겨있었다. 모국연수를 하는 6박 7일동안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고 함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한국 문화를 몸소 익혀 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비록 한국어 보다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나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더욱 편한 친구들이, 우리의 뿌리인 대한민국에 모여 한국을 알아가고 함께 배꼽 잡고 웃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 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다. 짧지만 강렬하게 한국을 경험하고 우리는 모두 다 각자 나라로 돌아가지만 7일 동안 우리가 함께 한 추억들이 하루하루 살아 가며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며 우리의 삶을 더욱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나 좀 그만 보고 네 일해!

>>>

이름: **베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고양이'의 표지 사진과 같아요)

나이: 3살 5개월 추정

종: 도메스틱 쇼트헤어(인도네시아 길냥이)

특징: 까만털 노란눈 - 베르는 심바네 집사님
아들이 구조해서 입양을 중용



<<<

이름: **봄** (봄날 햇살 같이 환하고 따스한 비
쥬얼)

나이: 2년

종: 페르시안 믹스

특징: 빠져드는 눈동자에 핑크 젤리를 가진 말
랑이 냥이

- 봄이는 물에서 눈이 딱 마주쳐서 지나치지 못
해 모셔옴

베르는... 골라빠가딩 주택가에서 아들친구 베슈킨님이 구조해서 입양을 의뢰(?)했어요. 아들이 고양이를 너
무 키우고 싶어한 걸 베슈킨님이 알고 있었기에 그들끼리 쑥덕거린 뒤에^^

태어난 지 2-3주 되어보였는데 눈병, 피부병이 있고 너무 약해보여서 걱정이 많았지만 하루하루 잘 견디고
씩씩하게 밥도 잘 먹고 해서 건강을 되찾고 무럭무럭 잘 자랐지요. 사람을 아주 좋아하지만 사람이 자기를
만지는 걸 싫어해요. 깨어있을 땐 절 주로 감시하고 있어요.

까칠하지만 늘 동생 봄이에게 먹을 순서를 양보하고 몸단장도 그루밍도 해주는 춘데레 형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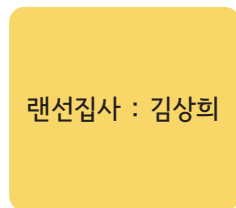


봄이는... 침 본 순간 딱 데려와야 겠다 했지요. 그냥 보기에 말랑말랑한 녀석인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지만 꼭 꼭 자기를 만져줘야 하고 발로 해주는 마사지를 즐기는 녀석이지요. 활동이 많지 않지만 조용히 사고를 잘 치는 요주의 인물.

배고플 때나 목마를 때, 밥그릇 물그릇 엮어 버리는 자기 표현이 강한 아이랍니다.

우리 아가들은 새벽 4시에는 밥을 꼭 먹어야 해요. 그 시간에 자고 있는 집사를 내려다보고 레이저를 쏘아 대서 안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두 냥이는 달리기 시합을 하고 레슬링 한판을 하고 학교 가는 형, 누나 배웅도 하고. 그리고 나면 엄마 감시 좀 하다가 다시 잠이 든답니다.

엄마 하소연도 잘 들어주고요. 저를 닮아 두 녀석이 꽃을 좋아하는답니다.





외국인도 무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독일 교육 제도와 인도네시아 독일 국제 학교 DSJ

글: 조은아(편집위원)

독일의 교육 제도는 매우 체계적이고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독일은 공교육을 기반으로 하며, 학생들이 지역, 학벌 어느 면에서도 국가적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1.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

일반적으로 6세~10세에 이뤄지는 공립 초등교육(Grundschule)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평가하고, 중등 교육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기초를 마련하는 단계다.

중등교육(Sekundarstufe)은 저학년 중등교육(Sekundarstufe I)과 고학년 중등교육(Sekundarstufe II)으로 나뉜다. 그 중 Sekundarstufe I은 5학년부터 9~10학년으로,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친 후,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 등 세 가지 고등 중등 과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Hauptschule (하우프트슐레): 직업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로, 실용적인 기술과 직업 교육에 집

중하며 일반적으로 9학년 또는 10학년까지 마친 후 취업을 하게 된다.

Realschule (레알슐레): 중간 수준의 학문적 교육을 제공하며, 고등학교나 직업대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10학년을 마친 후 취업과 직업대학교로의 진학이 가능하다.

Gymnasium (김나지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보통 12학년 또는 13학년까지 학습한다.

Sekundarstufe II (고학년 중등교육)는 11학년부터 12~13학년까지 이뤄지며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문적 집중을 더하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Gymnasium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입학 자격 시험인 Abitur를 거쳐야 하며, 낙제를 하지 않는 이상 평생 한번만 응시할 수 있다. Abitur는 독일뿐 아니라 EU국 전역에서 대학입학 자격을 갖는다. Abitur가 필수 요건이기는 하지만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독일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

가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레알슐레Realschule 졸업 후에도 직업학교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다.

2. 대학교육 (Hochschule)

독일의 대학교육은 전 세계에서 매우 인정받는 시스템으로, 일반 대학교와 응용과학대학교, 두 가지 주요 경로가 있다.

Universität (대학교)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해 심화된 연구와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Bachelor와 Master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bitur는 독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으로 1.0에 가까울수록 고득점이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의학, 법학, 수의학 등에서는 고득점이 요구되기 때문에 Abitur 점수로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은 원하는 전공의 진학을 위한 다른 경로인 인턴십과 사회점수 시스템을 두고 있다. 인턴십을 통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점수를 추가하여 대학에 지원하여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전공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턴십 (Praktikum) 학생들이 대학 진학 전에 직업 경험을 쌓고, 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은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후 이를 대학 입학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실무에 따른 급여도 받는다.

인턴십 후 취득한 경험은 ‘사회점수(Sozialpunkt)’로 변환되어 대학의 입시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된다. 사회점수는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턴십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보통 6개월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고 나면 일정 수준의 사회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점수는 대학 입학 시 Abitur 점수와 합산되어 최종 입시 성적에 반영된다.

인기 학과는 물론이고 실무 경험이 중요한 전공은 사회점수가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경제학, 공학, 디자인과 같은 전공들은 실무 경험 이 더 중요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턴십 경험을 쌓고 이를 사회점수로 환산한 뒤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Abitur 점수: 1.8 / 사회점수: 0.3

최종 합산 점수: 1.5 (대학 입학 가능)

이렇게 사회점수가 Abitur 점수와 결합되어 최종 입학 성적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Abitur 점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턴십을 통해 얻은 경험을 활용해 원하는 학과에 도전이 가능하다.





Fachhochschule (응용과학대학교)

Fachhochschule 응용과학대학교는 더 실무 지향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직업학교를 졸업한 후 Abitur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인턴십과 사회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Fachhochschule에서 요구하는 성적은 일반적으로 Abitur보다는 낮지만, 실무 경험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인턴십 경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교육을 받으며, 졸업 후에는 취업에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Fachhochschule 졸업생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으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3. 독일 대학의 학비

우리가 흔히 아는 독일의 명문대 뮌헨 공대, 베를린 공대,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 등도 모두 공립 대학이다. 독일의 공립 대학에서는 대부분 학비가 면제되며, 학생들은 학기 등록비만 지불하면 된다. 이 등록비는 대개 학기당 300~500 유로 정도이며 이 안에는 행정비와 함께 학생이 독일 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 교통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공립 대학은 독일 교육부의 정식 독일 교육 과정을 거치고 Abitur 점수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도 학비 면제를 시

행하고 있다. (단, 독일의 Baden-Württemberg 주에서는 EU국 이외의 외국인 학생에게 학기당 1,500~3,000유로의 학비를 부과하고 있다.)

사립 대학은 학비는 대학마다 또는 전공분야와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연간 5,000~20,000 유로에 이른다. 또한 대학원 프로그램이나 특수 프로그램(예: MBA, 전문 석사 과정)에는 학비가 부과되는 대학교도 있다.

독일 교육부 산하 ‘자카르타 독일학교 DSJ’

대부분의 외국 학생들이 국제학교와 내셔널학교의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도 독일 교육부 산하의 정식 독일 학교가 있다. 비싼 학비와 높은 생활비로 미국이나 영국으로의 유학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 독일학교는 또 다른 돌파구이기도 하다.

남부 땅그랑 BSD에 자리한 자카르타 독일학교(Deutsche Schule Jakarta, DSJ)는 1970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유일의 독일 교육부 산하의 정식 독일 학교다. 독일 교육부에서 파견한 교사와 임원진, 영어와 독일어가 가능한 현지 교사들에 의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매년 독일 교육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그 결과를 공유한다. 독일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학비도 미국, 영국, 호주 국제 학교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하다.

전교생 300여명 규모로 타 국제 학교에 비해 학생수가 적은 데 비해 한 학급당 두 명의 담임을 배정되어 있어 학생 한 명 한 명 세심한 교육 지도가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들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DSJ에서 교육을 받고 Abitur 자격을 갖는 외국인 학생들은 독일 공립 대학에서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2살반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독일어와 인도네시아어 과목을 배우는

Trilingual이라 불리는 인터내셔널 반과 독일어 위주의 독일반으로 운영되며 5학년부터는 모든 과정이 통합된다. 통합된다고 해서 전과목이 독일어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와 역사 등 몇몇 과목은 영어로 배우게 된다. 또한 독일어로 진행되는 수업에는 독일 교사 이외 독일어, 영어, 인도네시아어가 가능한 현지 보조 교사가 수업에 함께 참여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의 보충 설명도 가능하다.

별도의 입학 시험은 없으며 유치원과 초등 4학년까지는 3일, 초등 5학년 이상은 5일의 트라이얼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 체육, 음악, 수영 등의 과목은 꼭 참여하게 한다. 이 기간 동안 교사들은 학생의 사회성, 학습 능력, 운동 능력 등을 확인하고 각 과목 교사들의 의견을 통합해 학생의 입학을 결정한다. 독일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영어 사용 능력을 통해 독일어 습득 능력을 가늠해 평가하고 입학이 허가 후에는 학교의 독일어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2ha 규모의 대지에 운동장, 수영장, 실내 체육관, 테니스장 등 수준 높은 체육 시설은 물론이고 독일에서 직접 공수된 각종 실험 도구와 자재가 구비된 화학실, 물리실, 생물실, 음악실 등등을 갖추고 있어 과학과 음악, 체육에 강한 독일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교과서와 학습서 등은 무료로 제공되는데, 독일어 주요 과목의 교과서는 각자의 이름을 적고 깔끔하게 학습한 후 매년 후배들에게 물려주게 되며 실습서와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는 과목 교과서는 매년 새 책이 지급된다. 제2외국어로 인도네시아어와 프랑스어 교육이 실행되는데 인도네시아어를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정식 졸업 증명서인 IJAZAH도 취득할 수 있다.

9학년과 11학년은 인턴십 프로그램, 10학년에는 독일 현지 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와 밴드 활동을 장려해 전교생이 각 한 개 이상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격년으로 독일 바드 아롤젠 음악 축제에 참여해, 참여 학생들이 독일 현지 홈스테이와 음악 세미나 등을 통하여 독일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 협동심을 기르고 국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Abitur는 유럽 연합 국가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유럽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미국의 명문 대학이나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떠나 학업을 이어가는 졸업생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없다. 현재 DSJ에는 11학년 정준영군과 곽도윤군이 2026년 6월, 첫 한국인 졸업예정자이며 유치원을 포함해 14명의 한국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Deutsche Schule Jakarta
(<https://germanschooljakarta.id>)
Jl. Puspa Widya No.8 BSD
Tangerang Selatan
(021-537-8080, WA 0818-0865-808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자문위원 워크숍 및 정기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가 2025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자문위원 워크숍 및 정기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남아남부협의회 소속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57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번 행사에 특별히 주니어 평통 3명 (인도네시아 2명과 말레이시아 1명)이 함께 참가하여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첫날인 14일에는 참가자들이 말레이시아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Malaysia Culture Village(민속촌)를 방문하여 현지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5일에는 본격적인 자문위원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주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의 심준형 영사가 통일 특강을 맡아 자문위원들에게 깊이 있는 통일 관련 강연을 제공했다. 또한, 제1차 정기회의도 개최되어 향후 협의회의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이 논의되었다.

이날 개회식은 동남아남부협의회 이세호 회장이 주재하였으며,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의 이한일 공사(총영사)가 축사를 맡아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각자의 위치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안보환경 대격변기 속에서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남아있는 2025년 21기의 마지막 행사들을 공유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문화체험 일정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말레이시아 최남단에 위치한 Tanjung Piai 맹그로브 나무 숲을 방문하여 자연 생태계를 탐방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유리 소재로 지어진 독특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유리사원(Hindu Glass Temple)도 방문했다. 이러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협의회 내 친목을 더욱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동남아남부협의회가 모일 수 있는 중간 지점인 조호바루에서 진행됨으로써 협의회 내 다른 국가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역 내 한인 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제공: 이동현 민주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 부간사)



우리의 이야기도 기사가 됩니다

An illustration featuring two characters. On the left, a man with glasses and a tie is standing and reading a book. On the right, a woman is sitting and resting her chin on her hand in a thoughtful pose. The background is a light beige color with a large white circle behind the text.

인도네시아 한인학생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할
한인뉴스 학생기자 모집

모집대상

글쓰기에 관심있는 인도네시아 거주 고등학생

모집기간

2025년 3월 1일~ 4월 20일

제출서류

관심분야 기사 혹은 에세이(A4 한두 장 분량),
학생증사본

제출방법

간단한 프로필과 관련 서류를
haninnewsinni@gmail.com으로 송부

접수 및 문의

한인뉴스 홍석영 편집장 0818 711246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두 젊은이들의 새로운 도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 바람을 자카르타에 전하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일트(ILT) 대표 고성화, 정성환입니다.

현재 (주)일트는 약 10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입 방식 또한 일반 매매(급매), 경매, 공매, NPL(부실채권) 등 여러 전략을 활용하며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전업 투자자로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사이트를 13년 이상 거주했던 제 2의 고향인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인분들께 공유하고 싶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자카르타에서 “한국 부동산 세미나 in Jakarta”를 개최하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대 이상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

주식회사 “일트(ILT - Intuition(직감), Leverage(레버리지), Trust(신뢰))”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 두 대표의 만남도 직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희 두 대표는 ‘같은 목표와 비전’으로 각자가 그려가는 미래,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일치시키고 현실로 돌아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부동산 투자 방법 4가지

그동안 투자를 진행하면서 (주)일트가 활용한 부동산 투자 방법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일반매매:

a) 설명: 보통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매입을 많이 합니다. 절차는 매도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 매수인이 집을 사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b) 장점: 일반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소유권 이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며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명도가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내부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며, 하자에 대한 조건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c) 단점: 부동산이 제공해주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경우

는 급매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급매의 경우도 부동산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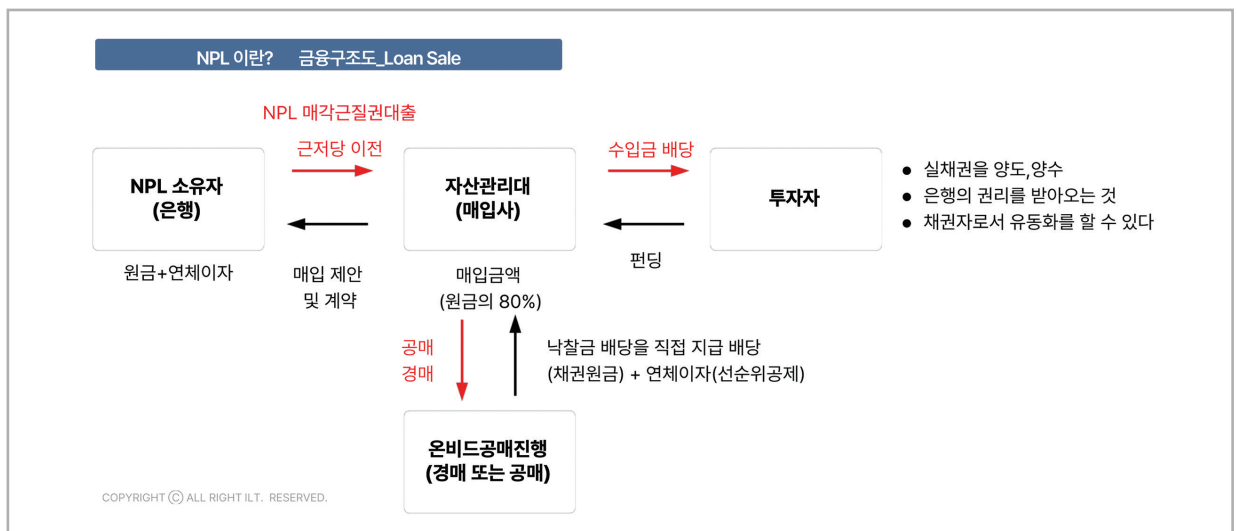
2. 경매:

a) 설명: 경매는 흔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

단 경매로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당사자, 즉 채무자(차주)가 금리의 변동으로 월세를 받아도 수익이 나지 않거나 하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했던 채권이 문제가 되면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매는 “법원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이 되며, 입찰자들이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입찰가를 가장 높게 쓴 당사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b) 장점: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권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시장에 나온 만큼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매의 장점은 소유권을 획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출처 소명을 할 필요가 없으며, 경락잔금대출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정가의 60%, 매각가의 80%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단점: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며,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을 몰수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 절차가 상당히 길며, 그 과정에서 명도 등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매:

a) 설명: 온비드, 캠코 등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입찰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경매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법원이 아닌 기관을 통해 부실한 부동산 채권을 매각하는 프로세스입니다.

b) 장점: 경매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투자 유연성이 높으며, 경매에 비하여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c) 단점: 접근성이 좋지 않고, 특히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권리분석이나 물건분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4. NPL(부실채권):

a) 설명: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담보 부동산을 확보하고, 이를 정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금융 및 법률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b) 장점: NPL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저평가된 부실채권을 매입해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담보 자산을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확보 (감정가 > 급매가(90%) > 경매가(80%) > 공매가(70%) > 부실채권(60%)) 가능하다는 점

이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경기 침체 시 투자 기회가 증가하며, 다양한 exit 전략을 구사하여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c)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며, 법적 리스크 (채무자와의 분쟁 또는 유치권 등 소송 및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가 있다는 점이며, 이때문에 채권 분석, 법률 이해, 시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수익 구조가 변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연한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각 투자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명확하며,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두 대표 역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시장에 맞는 투자를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주)일트가 바라보는 한국 부동산 시장: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 정책,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일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찾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변화와 가능성은?, 다음 글에서는 현재의 시장 상황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중 재(Arbitrase) (3)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화해, 조정 혹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I), 인도네시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MUI)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I)과 이 분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센터(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자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사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느 한 쪽이 코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시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중국에는 호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들이 취하고 있는 적법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채무자 기업 혹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중 한 채무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의 간단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임대차, 하청, 투자,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고,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중재에 사용하는 언어는,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에,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할 수 있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써,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평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공정한 판결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보며,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록 통지가 가며,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받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쉼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재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쉼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쉼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쉼석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쉼석판결문의 내용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1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인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대한상사중재원에,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쉼석중재판결을 맞아,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U.N. 협약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법원도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은 상대방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중재원의 판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그냥 놔두지 말고, 중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새로운 시작, JIKS 초등 입학



2025년 3월 3일 (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KS, 교장 이선아)는 나래 홀에서 신입생과 신입생 학부모를 모시고 제47회 입학식을 가졌다.

1학년 학생들은 6학년 선배들의 손을 잡고 풍선 장식이 된 길을 걸어 입학식장인 나래홀로 입장을 하였다.

교장선생님의 신입생 입학허가 선언에 이어 1학년을 사랑으로 지도해 주실 담임선생님과 교과 담당 선생님의 소개가 있었다.

학교장은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치고, 모범적인 선배들이 다니고 있는 JIKS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함을 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6년간의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축하 동영상 상영하였다.

새 출발을 앞둔 입학생들은 학교생활과 기대와 설렘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 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 4497/7203 356
사랑	835 1540
하나	844 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존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외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New Seoul Dental Clinic 0857 1917 9388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라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츠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뽕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뽕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뽕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뽕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독뽕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매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무궁화 꼬망점 021 722 7214
무궁화 찌뽕뜨라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라베뉴점 0852 8279 9647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한나아시안 슈퍼마켓 085313645332

● 식당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강남 0812 2323 5119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강남스타일	2952 8443
깜닭	4584 5837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다운 코리안 그릴 & 다이닝	3825 0900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도마 식당	0858-5555-6510
대가	8459 2871
대가야	547 551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루 짬뽕전문점	0851 8277 2578
미스터 박	5140 1142
방앗간(분식, 케이터링)	0813 8521 1474
버카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삼원가든	2988 9505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상하이	5573 5550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산들	5579 5821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까복	3005 16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서라벌	3825 0401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새마을 식당	0852 1506 1211
소래포구	8990 5051
수하루	5577 8585
숙달	0821-4007-7256
아리수	0254-781 0059
양대팔	0856 9226 9933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웅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유가네	2221 3392
연안수산	0811 8880 1374
우다움 세노파티	0811 1001 3571
예원	021-7212-0533
이차돌	0811 1838 310
정원 레스토랑	0852 1158 0507
주막	0821 7210 0452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찬찬	0812-1060-4848
청기와	0858 1377 3388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토박	725 113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한마당	5577 6770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남동	0819 9994 099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 8787 4928
글로벌 케이터링	8977 4174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가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콕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JASMIN HAIR SALON

Jasmin Hair Salon 1 (한국 미용실)
Darmawangsa Square 1F G46 Jakarta Selatan
영업시간 09:00~19:00 Tlp. 021 7280 0019/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현지 살롱)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0225

Jasmin Hair Studio 3 (맞사지, 네일 전문점)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6530
Darmawangsa Square GF (Studio 2 G40, Studio 3 G54)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름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28051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썸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	----------

오름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 882 1462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Suhada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균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웅)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여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프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 호텔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공항지점)	5031 1030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아트	390 1234

반 등

반등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등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등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등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포교원)	765 6036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익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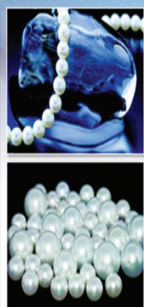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서중일고(박광호)	0817 46 1111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대전고(윤내선)	426 2954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영산대(최재혁)	590 0401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웅)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김 종 현	0811-837-386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박 성 대	0811-126-323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 한인회	회장	한 준 석	0812-1006-0965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 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이 동 진	0811-218-604
		사무차장	이 덕 환	0812-2017-838
7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사무국장	최 효 순	0812-303-5940
9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형 기	0857-4706-9713
11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CEP

PSG

SBS

DONGHAE

SIMS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INTEC

SRT

ABM

Yeong Yang
Wind Power

KIDECO